

8-1-2015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목회 활성화 방안: 방어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Ky Dong Kim 김기동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김기동,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목회 활성화 방안: 방어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플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MINISTRY ACTIVATION STRATEGY FOR EVANGE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ANGEOJIN-JEIL CHURCH

written by

KY DO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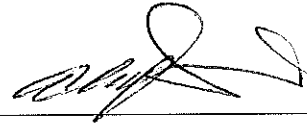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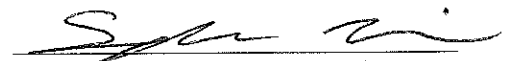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Ah Young Kim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ugust 1, 2015

**A MINISTRY ACTIVATION STRATEGY FOR
EVANGE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ANGEOJIN-JEIL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KY DONG KIM

AUGUST 2015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목회 활성화 방안
- 방어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김 아 영 교수

김 기 동

2015년 8월

Abstract

A Ministry Activation Strategy for Evangelization of the Local Commun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angeojin-Jeil Church

Ky Dong Kim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ministry focus paper studies the pastoral strategy of Bangeojin-Jeil Church for evangelizing the community. The study involves both academic research and field research. It seeks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communicating the gospel to the community, in order to build a church enabled for ministry to the community. This paper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Bangeojin-Jeil Church is located and examines the need to serve the region.

The paper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1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is thesis. Chapter 2 defines the concept of community and of evangelization, looking at what the Bible says about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God an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dom and the church. Chapter 3 examines active evangelization through the local church. Chapter 4 looks at the history and environment of Ulsan where Bangeojin-Jeil Church is located. Chapter 5 looks at the history of the Bangeojin-Jeil Church, the subject of this study. It also summarizes the church's work for the community. Chapter 6 presents the problems of the church and gives alternative ways for the church community to go forward. Chapter 7 summarizes and concludes the study.

Theological Mentor: Ah Young Kim,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말씀

15년 전, 파사데나에 위치한 Fuller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곳에서 공부했으면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기도가 응답되어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부교역자로 사역하는 중에 논문을 쓴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으로 논문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목회를 누군가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과 은퇴를 앞둔 아버지께 아들의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지도를 맡아 꼼꼼히 지도해주신 김아영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사무실이 정리될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경써주신 김태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공부의 기회를 열어주신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련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방어진제일교회의 자료를 찾아 정리해 주신 장영철 장로님과 설문조사를 응해주신 방어진제일교회 성도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평생 목회의 롤모델이 되어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게 한 아버지 김상복 목사님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신 김현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위가 학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후원해 주신 장인 이구종 장로님과 누구보다 논문이 완성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해주신 장모 유영상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마무리되기까지 늦은 밤 설문지 통계와 교정을 봐준 사랑하는 아내 광보영과 설문지 정리를 도와준 큰아들 주완(주님의 완성), 아빠가 하는 일에 묵묵히 응원해주는 주성(주님의 성령), 지칠 때 마다 웃음을 준 예수(예수님은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출자에 불구하고 이 논문이 아버지 김상복목사님이 은퇴한 뒤에도 방어진제일교회에 미약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5년 8월

김 기 동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범위	4
제 2 장 지역사회와 복음화	6
제 1 절 지역사회	6
1. 지역의 개념	6
2. 지역의 형성요소	8
3. 지역의 기능	9
4.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	11
제 2 절 지역복음화	15
1. 복음의 이해	15
2. 하나님 나라의 복음	17
3. 하나님 나라와 교회	19
제 3 장 지역복음화의 모델	25
제 1 절 지역사회 복음화 사례	25
1. 도시속의 녹색교회	25
가. 도시속의 녹색교회(청파교회)	25
나. 농촌(김제들녘교회)과 도시연결(향린교회)	27
2. 복지중심 교회	28
가. 주부를 위한 사역(세중앙교회)	28
나. 장애인을 위한 사역(구미상모교회)	29
3.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30
가. 어린이 사역(기창중앙교회)	30

나. 연결고리 학재(한강교회)	31
제 2 절 요약과 정리	32
제 4 장 울산지역과 교회의 역사	34
제 1 절 울산광역시 현황과 특징	34
1. 울산광역시의 도시화 역사	34
2. 울산광역시의 특징	35
제 2 절 동구(방어진) 주변 상황분석	36
1. 지리적분석	36
2. 사회 경제적 상황	37
3. 종교적 상황	39
4.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현황	40
5. 울산지역 초기 기독교 배경	41
제 5 장 방어진제일교회의 역사	43
제 1 절 설립동기와 배경	43
1. 방어진제일교회 역사의 요약과 진단	44
제 2 절 방어진제일교회 목회 활성화시도	46
1. 김상복 목사의 목회관	46
가. 성도와 함께하는 목회	47
나. 말씀중심 목회	47
다. 기도중심 목회	48
2. 교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	48
가. 직분자 제도	49
나. 교구권사 제도	50
다. 바나바 활동	52
라. 어와나(AWANA)도입	52
마. 해외 및 국내선교	53

제 3 절 방어진제일교회 지역사회 섬김	53
1. 무료급식운영	54
2. 장학금전달	54
3. 선물추첨의 밤	54
4. 건강(노인)대학	55
5. 아나바다 가게	55
6. 제일선교원	56
7. 의료지원	56
제 4 절 지역사회복음화에 대한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	57
제 5 절 방어진제일교회 활성화 사역의 평가	63
제 6 장 동구(방어진)지역 복음화를 위한 교회갱신	65
제 1 절 문제제기	65
1. 고령화와 저출산	65
2. 사역교인 배출의 한계	66
3. 전문화된 지역봉사자 요구	67
제 2 절 교회 안의 갱신	67
1. 주일 낮 예배의 변화	67
2. 관리하는 교인에서 사역교인으로 양성	72
가. 임직제도 간소화	73
나. 교구권사 순환 및 재교육	75
3. 구역의 변화	77
가. 예배중심에서 나눔 중심	77
나. 가정교회 목장으로 전환	79
제 3 절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참여	81
1. 지역사회 적극적 홍보	81
2. 전문화된 봉사자 양성	82
제 4 절 지역교회로서의 전문화된 사역 전략	82

1 가정상담센터 운영	83
가. 혼전교육	84
나. 출산예비학교	85
다. 아기학교	86
2. 장애인 예배	88
3. 외국인근로자	89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90
5. 착한가게(로컬푸드) 운영	91
6. 문화센터 건립	93
제 5 절 지역교회로서의 활성화 과제	94
1. 다음세대(교회학교) 과제	94
가. 회심에 대한 과제	96
나. 창조론에 대한 과제	96
다. 성(Sex)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과제	96
2. 다문화 가정의 교회 활성화 과제	97
제 7 장 결론	99
부록	102
참고문헌	116
Vita	120

표 목 차

<표 1> 제도의 일차적인 기능	11
<표 2>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인구 및 세대수 현황	38
<표 3> 동구지역 복지시설 현황	40
<표 4> 역대 교역자 사역기간	44
<표 5> 교회 직분자 연수 표	49
<표 6> 2015년 항존직 수	50
<표 7> 설문에 응답한 성도 현황	57
<표 8> 출석하게 된 경로 및 동기	58
<표 9> 가족의 신앙생활	58
<표 10> 방어진제일교회 만족도	58
<표 11>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한 견해	59
<표 12> 본 교회가 시행하는 사회봉사 인지도	59
<표 13> 본 교회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봉사 영향도	59
<표 14> 본 교회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정도	60
<표 15> 본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반응	60
<표 16> 본 교회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60
<표 17> 교회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봉사에 대해	61
<표 18> 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	61
<표 19>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61
<표 20> 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	62
<표 21> 예배순서 제안 1	70
<표 22> 예배순서 제안 2	71
<표 23> 각 장로교단 임직자 자격과 선출방식	73
<표 24> 영성모델의 8가지 요소와 핵심취지	76
<표 25> 혼전4주 교육 커리큘럼	85

<표 26> 임산부 양육 흐름도	86
<표 27> 아기학교 상하반기 12주 전체 프로그램	87

그림 목차

<그림 1> 울산시 동구 지도	37
<그림 2> 교회가 위치한 곳	44
<그림 3> 연도별 초고령인구 비율 전망	66
<그림 4> 시도별 이혼율	7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만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퍼센트나 됐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36.0퍼센트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평균 2.62점으로 파악됐다.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친 세 차례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은 18.4퍼센트, 19.1퍼센트, 17.1퍼센트, 5점 척도 평균은 2.55, 2.82, 2.58로 나타나 개신교의 낮은 신뢰도가 해가 갈수록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기윤실은 분석했다. 주요 종교기관의 신뢰도는 가톨릭이 29.2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불교(28.0%), 개신교(21.3%), 유교(2.5%), 원불교(1.3%) 등 순이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종교 신뢰도를 보면 가톨릭 32.7퍼센트, 불교 26.6퍼센트, 개신교 8.6퍼센트로 나타나 개신교 신뢰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의 구성요소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교인(30.3%)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목사(21.1%), 교회활동(14.1%) 순이었다.¹⁾ 이 통계를 보면 기독교는 한국 삼대 종교 중 인구비율이 1위이지만, 신뢰도는 세 번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도 현재 기독교는 사회전반에 걸쳐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며, 구성별 요소에서 목사보다 성도들의 신뢰도가 높게 나온 점 또한 충격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한국 네 교회가 5만여 교회가 된다고 한다. 이 교회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1)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세미나안*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16-23.

인구밀집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쉽게 교회건물을 볼 수 있다. 도심 속의 교회들의 형태는 다양하다. 단독건물로서의 교회로 부터 상가교회, 지하교회, 건물교회, 가정교회 등의 형태로 지역건물과 주택형태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심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교단과 거리 상관없이 설립자가 원하는 곳에 세워진다. 이런 풍토는 한 지역의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웃지 못 할 광경을 보여주기도 한다. 교회건물이 과하게 밀집될 때는 도시 전체의 혐오시설로 비추어진다. 본 연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한 블록에만 해도 9개의 교회가 있다²⁾. 또, 교회마다 상가에 종탑을 세워 교회모습을 갖추지만 개척에 실패한 교회는 종탑만 남겨두고 떠나버린 곳도 많다. 이 교회의 종탑은 녹이 슬어버리거나, 종탑 위의 교회 이름이 상호로 바뀐 경우도 종종 보게된다.

한국교회는 세대 간의 충돌이 발생되고 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을 내세우고, 다음세대에 진보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계속되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원로목사와 담임목사 사이의 문제이다.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해도 성도들을 수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작은 일이라도 새롭게 도전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과거에 교회가 해왔던 일과 비교해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적 요소가 교회를 분쟁을 낳고, 나중에는 원로목사파, 담임목사파로 교회가 나누어지기도 하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친다. 결국, 교회안의 갈등이 지역복음화가 되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

교회는 지역 속에 세워진다. 이 의미는 교회는 지역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세워지는 것을 넘어 지역을 위해 세워져야 하고, 지역은 교회를 통해 유익을 얻는 관계가 될 때, 지역과 교회는 유기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 진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회는 전도라는 이유로 지역을 활용할 뿐³⁾, 지역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사회의 비전을 주는 것은 미흡하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지역주민의 경제와 삶이 나아지는 것은 별

2) 본 연구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 광명 5동의 교회를 직접 조사한 결과이다.

3) 한국교회는 5월과 11월에 '새생명축제'를 진행한다. 이런 행사는 단회적으로 끝날 때가 많다.

개로 여겨지고 있다.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부흥은 비례하지 못한다.

지역은 교회를 종교단체로 보고, 경계 대상으로 본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기에 교회가 지역 속에 들어가되 깊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긴다. 반대로, 세상(지역)은 교회를 지역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집단’이라고 여긴다. 그들은 교회를 종교시설의 한 곳이며 지역과 분리된 곳으로 여긴다. 지역주민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지역과 교회 간의 부지는 오해를 가져오며 미묘한 갈등으로 나타난다. 언론에서 특정교회의 문제가 보도되면 모든 교회들도 똑같은 곳으로 여기기도 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회도 문제된 교회와 동일시 해 버리는 일도 나타난다.

한국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정체되고 감소되는 실정에 있다. 앞으로의 교회성장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은행들이 교회에 대출해 준 금액은 총 4조 5천억원이다. 매년 한국교회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250~5천억 원 가량이다. 매달 드려지는 현금 중 187~416억원이 이자로 나간다. 이 규모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려면 매주 1~2천 원씩 주일 현금을 드리는 학생이나 교인들을 기준으로, 500~800만명의 교인들이 필요하다. 원금까지 갚으려면 매주 주정현금보다 2~3배 더 현금해야 한다. 현재 목회자와 장로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도 교인들은 남아 20~30년을 계속 현금해서 갚아야 한다.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이단을 포함해) 870만명 정도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상적인 현금과 재정 운영상으로는 이자만 겨우 낼 뿐이고, 은행에서 빌린 원금은 거의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회는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를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다. 신자들의 믿음과 경제적 능력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즉 신자들의 믿음과 경제적 능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교회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⁴⁾

이런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기 까지 교회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교회 정체성이 지역과 연대관계에 있는지, 현재 지역 속에 있는 교회는 지역을 향한 어떤 사명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회 스스로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도심에서 기생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사명을 지역에 실천하기 위해 있는지? 지역을 위해 교회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도 간과해

4)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29.

서는 안 될 문제이다. 교회는 지역에 세워진 연 수 만큼 지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에 영적인 부분만 책임지는 것을 넘어 성경말씀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지역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 여겨야 한다.

본 연구자는 방어진제일교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 교회는 울산의 어촌지역인 방어진에 위치 해있다. 89년 된 교회로 2대 교역자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가 거쳐 간 교회이다.⁵⁾ 현재 담임목사인 김상복 목사는 22대 목사로 봉직하고 있다.⁶⁾ 교회 90년 역사에 담임목사가 21번 바뀌었는데 이는 평균 3년에 한번 꼴로 목사가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사 가운데 이만큼 담임목사가 바뀐 교회는 드물 것이다. 이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교회의 문제는 1983년도에 김상복 목사가 부임함으로 해결되기 시작했다. 100명에 불과하던 성도가 2015년 등록 수 4천명의 성도로 부흥했고, 교회 90년 역사에 최초의 원로목사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 특이할 점은 이 교회는 한국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울산광역시 도시 속에 작은 어촌지역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어촌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짙은 지역이다. 울산은 전국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이면서, 기독교 신자가 5퍼센트 미만의 도시이기도 하다. 방어진제일교회는 이런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부흥 되었다. 또, 교회사적으로 분쟁이 많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 성장의 바탕에는 한 목사의 목회철학가운데 지역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교회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해야 하는지를 방어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교회가 지역을 통해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방어진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방향을 목회 자료들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과 범위는 교회가 지역을 어떻게 목회적 대상으로 삼아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하는 가이다. 본 논문은 지협적인 교회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지역에 필요한

5) 당시 손양원목사는 '진도사' 직분으로 2년간(1928-1930) 사역을 함.

6) 김상복목사는 1983년에 부임하여 현재(2015)까지 32년간 사역중이다.

교회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7장으로 구성할 것이며 제1장에서는 연구 주제, 연구의 동기, 목적, 연구 범위와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2장에서는 지역 형성의 기초를 살펴보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복음을 지역 특성과 연계 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3장은 지역복음화가 된 지역을 예로 살펴보고,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를 선정하여 교회프로그램이 어떻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장은 울산지역의 특징과 한국 역사 속에서 울산지역의 선교적 위치를 찾으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분석해 본다. 이 지역 속에 지역사회 고무적인 영향을 준 방어진제일교회가 현재까지 했던 사역들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을 설문조사로 알아보고 평가해 볼 것이다.

5장에서는 현재까지 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에 어떤 사역으로 구체화시켜 지역교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본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교회 내에 갱신되어야 할 점을 다루어 보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필요에 접근하고 계획해야할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7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제언을 통해 결론을 맺는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와 관련된 논문과 책을 기초로 하고 울산지역에 관공서의 통계와 방어진제일교회에 요람 및 당회록, 유인물과 교회역사와 함께한 성도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연구될 것이다.

제 2 장

지역사회와 복음화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을 목적으로 달려왔지만 현재 지역사회 속에 교회의 신뢰도는 낮은 상태이다. 지역과 연계되지 못한 교회성장이 있어왔고, 많은 교회는 ‘그들만의 공동체’⁷⁾로 지역사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지상교회가 자리 잡아야 할 곳이다. 교회는 지역을 이해하는데서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1. 지역의 개념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형태이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범위의 토지와 사회라는 소규모 집단으로 부터 가족과 친족만의 형성된 자연적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란 영어의 Community로서 라틴어의 ‘Communes’에서 유래된 것으로, ‘친목, 인간관계, 정서적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Community’는 다양한 의미와 문맥 속에서 쓰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사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⁸⁾

넬슨(Nelson)은 지역사회란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식을 가

7) ‘그들만의 공동체’란? 종교심에 심취해 모여진 집단으로 지역사회가 보는 교회의 모습을 말한다. 지역과는 교회는 분리되어있으며, 함께 더불어 공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3.

지고 조직된 관계를 통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분담 수행하는 인간집단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너(Steiner)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으로서 그들의 공통 관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조직화된 인간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개념은 맥키버(R.M. Maclver)와 갤필(Galpin)의 개념을 들 수 있다. 맥키버(R.M. Maclver)는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기초로서 지역성과 지역사회의 공동성으로서는 사회적 유사성, 공동된 사회적 관심, 공동된 전통, 공동된 학습, 공동 소속감을 찾았다. 지역사회의 의식의 구성요소로는 동료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을 지적했다. 갤필(Galpin)은 지역사회의 개념을 교역권이라고 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범위를 분산된 토지에 거주하는 농가가 교역 중심의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시장권으로 보고 있다.⁹⁾

지리적 지역사회는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집단, 즉 동, 읍, 시와 같은 행정구역의 집단과 마을, 시장권 학교권과 같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지역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나 공동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이익집단이 해당된다. 개인적 지역사회는 개인이 자신의 관점에서 규정한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는 데서 시작한다. 이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서의 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개인의 상호작용, 서비스나 자원의 이용, 구직 활동, 여가 활동 등에서 개인이 참여하는 모든 지역사회를 말한다. 또, 지역사회는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등 학문 영역에 따라 한 측면에 과도하게 강조되어 개념 정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지역사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일정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고 생활, 경제, 활동 영역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영역이 형성된다. 지역사회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과 방법으로 규정하고 지역집단과 이익집단을 동일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지역사회란 공동적 이해관계로 공동생활을 하기 위

9) 이영철,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양서원, 2003), 15.

해 모여진 인간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의 형성요소

지역사회는 공간중심의 지역사회와 사회관계중심의 지역사회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다. 산업화 이후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이웃보다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세기 이후 지역의 개념은 기능적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는 공동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되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가 나타났다. 지역사회나 공동체 개념은 강한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사회 생활의 상호 연결된 연결망을 통해서 각 개인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사회구조이며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회구조이다.¹⁰⁾

이 사회 구조는 다양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양함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형성한다. 지역은 약속된 법적 테두리 속에서 공동의 선에 대해 다양한 비전을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상호조정 단계 거쳐 지역형성의 체계를 형성해 간다. 이 지역형성은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결속 되어져야 한다.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의, 평등, 자유, 개인의 존엄성, 재능과 에너지의 발휘 등이 존중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원활한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에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상호이해를 증대시키며 지역에 속한 구성원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쉬워진다. 지역사회 속에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임을 통해 지역을 보다 자율적인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의 참여가 있어야 지역구성원들의 필요를 공유하며 해결해 갈 수 있

10)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경기도: 현학사, 2003), 17.

다. 지역사회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참여를 위해 지도자들은 폭넓은 연결망과 영향력뿐만 아니라 실천 가능한 합의 도출, 동기부여, 설명 등에 구성원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나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은 공통적으로 생산, 분배, 소비, 여가들을 포함하는 인간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가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생산, 분배, 소비 기능, 사회화기능, 사회통제 기능, 사회통합기능, 상호상조 기능 다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¹¹⁾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생산과 분배 기능은 주로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정부를 비롯한 각종 전문기관,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도 이러한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화 기능은 사회가 향유하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 양태를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사회의 구성원과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계속 진행된다.

사회통제기능은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사회 내의 그 구성단위인 개인이나 집단의 동조와 복종을 확보하는 수단 및 과정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매우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법률, 도덕, 관습, 교육, 신앙,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도록 정부가 일차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지만 이러한 강제력이 결여되면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비행과 범죄가 만연되는 사회해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통제를 담당하는 정부는 경찰관과 사법권을 통해서 법을 집행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정치 기능과 제도가 있으며, 가정, 학교, 교회와 같은 사회기관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11) 김치영, 윤경애, *지역사회복지강론* (서울: 양서원, 2003), 56.

종교 사회학적으로 볼 때 종교는 지역사회에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 통합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종교가 소수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정당화하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집단의식을 마련해 주고, 이에 따라 사회 질서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 변형 혹은 사회 변동의 기능이다. 종교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의, 정치적 부패와 타락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질서에 도전 하면서 사회변혁을 촉구하기도 한다. 잘못된 정치, 경제, 사회질서, 비신앙적인 종교질서에 대해서 과감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촉구한다.

셋째는 사회 통제 기능이다. 종교는 기성 사회의 규범들과 가치들을 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교는 개인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윤리적 가르침을 제공하게 된다. 종교는 각종 범죄와 부도덕 행위를 신앙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힘을 주어 도덕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¹²⁾

종교가 사회를 향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능 중 첫번째 사회통합 기능은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간 또는 사회 내의 여러 집단, 단체, 기관들이 서로 결속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회 체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결속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화 기능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수단이고, 사회통제 기능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지배하고 강조하는 수단인 반면, 사회통합의 기능은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 일으켜 사회의 존속을 유지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제도는 종교제도이다.¹³⁾

인간이 살아가면서 질병, 사망, 실업 등 개인적 이유이건, 다른 제도적 이유에서 건 간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이나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도와주는 기능이 상부상조기

12)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소, 1992), 84-85.

13) Ibid., 58.

능이다. 전통적인 사회나 오늘날의 후진사회에서의 상부상조 기능은 가족과 친척 이웃사람들,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일차적인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상부상조 기능을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기능들은 단순화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도 세분화되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¹⁴⁾

<표 1> 제도의 일차적인 기능

제 도	→	일차적 기능
가 족	→	사회화
종 교	→	사회통합
경 제	→	생산분배소비
정 치	→	사회통제
사회 복지	→	상부상조

4. 지역사회와 교회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는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통합적 사회기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역 활동이 있어야 한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비전 또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연관된 정책이 있을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교인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구약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는 '카할(qāhāl)'인데 이 단어는 사어(死語)의 어근 '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다. 또, 다른 단어 하나는 '야다'에서 유래한 '에다'인데, 이 단어는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는 뜻이다. 성경은 이 두 단어를 번번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에는 소집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버리들로 형성된 사회 그 차체를 칭한다. 반면에 '카할(qāhāl)'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한다. 그 결과 종종 '케할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회중

14)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59.

의 모임'을 말한다(출12:6; 민14:5; 렘26:17).¹⁵⁾

신약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졌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리라.(마6:16절)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데서 교회가 시작되어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 용어는 헬라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알(qāhāl)’을 번역한 말로서 모여 있는 무리를 묘사한다.¹⁶⁾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와 비유와 상징이 100가지 이상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이다.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와 ‘카할(qāhāl)’은 모두 회중보다는 실제로 모여 있는 무리를 표현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70인 역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에크(ek, 밖으로)’와 ‘칼레오(kaleo, 부르다 혹은 소환하다)’의 복합어인 동사 에칼레오(ekkaleo)에서 파생된 말이며, 이 에칼레오(ekkaleo)는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진다. 이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 시켜 밖으로 불러내신 백성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 뜻을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마4:23; 행13:43; 계2:9; 3:9). 그러나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두서너 곳에서 백성으로 모여진 모임으로 지칭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약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¹⁷⁾

이 용어 안에는 실제로 회중이 모이는 과정과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공동체를 다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낳으신 분이요(요1:12,13). 그가 그

15)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811.

16) Edmund, P. Clowney, *교회*,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8), 30.

17) Ibid., 812.

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흑암과 권세에서 건짐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진 새로운 백성의 부리들이다(골1:13).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택하신 족속으로 기록한 나라가 된다(벧전2:9).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임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¹⁸⁾

이 교회는 지역 속에 세워지기에 지역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지역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 교회는 지역 속에 들어가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지역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 지상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세워 질 수가 없고, 지역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장이 없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며, 지역사회를 구원해야 할 복음적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지역은 지상사명이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첫 번째 대상이고, 교회가 세워질 곳이 되어야한다.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 에 연합함으로 교회가 된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는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져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되도록 항상 열려있어야 하며 앞으로 올 지역 속 영혼들을 위해, 지역에 대한 사명적 실천을 위해 열려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전도 대상이기에 이들을 향해 열려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교재를 통해 교회의 유익이 지역사회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어 형성된 공동체로 지리적, 문화적, 혈연적, 민족적 연관관계 속에서 독특한 자립권과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의 창조 결과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모습을 반영한다.¹⁹⁾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에서

18)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71-72.

19)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서울: 두란노, 1998), 15.

기인한다. 지역교회는 이런 점에서 공동체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단순히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인격체로 계시지 개인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상호성을 전제한 것이고, 개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독립성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신다고 말할 때는 삼위 하나님의 개별적 실존을 인정하되 관계적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결코 자기중심적 이거나 독립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독자적 의식을 지니고 상대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시면서 상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은 개별적 인격체들로 존재하시지만 사랑 안에 상호 의존적이고 상부상조적이며 상호 존중하며 상호 신뢰하면서 '하나'이신 것이다. 즉 복수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신다는 의미이다.²⁰⁾

교회는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공동체이면서 하나의 교회로 지역 속 문화 가운데 세워진다. 교회공동체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공동체로 전락되고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이상주의 집단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유교주의 바탕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한국에 산다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에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구성원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권익 보호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해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해의 득실에 따라 새로운 분열이 거듭되며 더 강한 상대집단을 발견 했을 때는 흡수 통합되기도 한다. 학연, 지연, 혈연은 작은 단위의 것으로, 조직보다는 의식의 단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의식이 협동 관계로 성립될 때 한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다양한 관계가 이루어진다.²¹⁾

집단 이기주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혹은 자기 집단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겨났다. 따라서, 한국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정한 '우리', 혹은 하나 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우리'는 내 생각이 중심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는 내 중심적 '우리'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20) 권문상, *부흥 이개인 1907* (경기도: 브니엘, 2006), 237-47.

21) 이이화, *한국인의 파벌* (서울: 솔과 학, 2004), 59-70.

그 '우리'에서 환영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 '우리'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 집단들, 특히 그 중의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쉽게 일어나고 폭발한다.²²⁾ 더 나아가 한국인의 '우리' 의식은 공동체적이지 않고,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비공동체적인 집단주의가 되었다. 이 집단주의 형태가 오래되면 전통주의라는 말로 탈바꿈이 되고, 성경의 진리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교회의 정체성 보다 더 우선시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릭 워렌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을 8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에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 과거를 되풀이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²³⁾

지역교회는 이런 여러 파벌적인 사회문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곳이다. 또, 교회는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는 실제적 통로가 되어진다. 지역교회는 복음의 토대위에 세워진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된다.

제 2 절 지역복음화

지역복음화를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 복음의 이해와 정의는 교회가 지역을 바라보는 목적을 세워지며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야 할지를 말해준다. 이 절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복음이 전해진 지역사회 내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관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복음의 이해

구약성경에서 '복음'이란 용어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에 '바사르(בשר)' 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또는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래적인 언급과 함께 '약속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유양젤리

22) 권문상, *부흥 어개인 1907*, 170.

23) Rick, Warren. *새들백교회이야기* (서울: 디모데, 1995), 93.

은(εὐαγγέλιον)이라는 용어인데 ‘기쁜 소식’ 또는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헬라어 명사는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했고, ‘복음 전하는 사람’ 또는 ‘전도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복음을 ‘반가운 소식’ 또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계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이 ‘복음’이라는 용어에 대한 뜻이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 단어를 정의 할 수 있다.

김세윤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은 사단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진권대사로 하나님을 대신 하여 복음의 선포자로, 하나님의 부왕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다니엘7:13-14)로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회심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약속된 상속과 무한한 부요함과 신적 충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복음의 선포자로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모으고, 종말의 창조자로 모으려고 한 것이다. 복음은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에서 회개하여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전한 선포방식이다.²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자신들의 고백과 선포방식으로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증거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주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 이후 현재도 그 주권을 계속 대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그들의 복음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므로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위에 승리케 한 것이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편 110편 1절²⁵⁾의 성취로 보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자신의 우편에 높이 그로 하여금 온 우주

24)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0), 151.

25)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를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할 때 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개역개정판).

위에 자신의 통치를 대행하게 했다. 그리하여 생전에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시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을 결정적으로 무찌른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잔여 세력을 진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해 가게 된 것이다.²⁶⁾

신약성경의 전도자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범주로 선포했다. 사도바울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의인 됨’, ‘하나님과 의’, ‘화해 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됨’ 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사단을 결정적으로 꺾고,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주로 높임 받으신 분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통치를 펼쳐가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승천을 강조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교회를 통해 선포하고 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전권대사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했던 치유와 해방의 사역을 사도들이 계속하는가를 보여준다. 누가가 선포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벌써 죄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 병자들의 해방과 치유의 형태로 실현해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²⁷⁾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는 곳이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이 다양한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교회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2.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영향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말하고 실천해왔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중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다. ‘나라’라고 번역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인 ‘말쿠트(מלכות)’는 구약에 200여회 나타나는

26)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89-191.

27) Ibid, 201-202.

데,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말쿠트(מלכות)’가 인간 왕에게 적용될 경우, 주로 ‘통치’, ‘지배’, ‘치세’, ‘왕권’ 등과 같은 추상적, 역동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부차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 영역, 지역, 영토의 의미로 사용된다. ‘나라’라고 번역되는 헬라이 단어 바실레이아(Βασιλεια)는 히브리어의 말쿠트(מלכות)와 더불어, 유대교 문학에서 ‘영역’, ‘영토’, 라는 공간적 의미보다는 ‘통치’, ‘지배’, ‘왕권’ 등의 추상적, 역동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²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고, 그 선포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이 창조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그들이 사람의 이중 계명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살림이 지금 벌써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고 가르쳤다.²⁹⁾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 그 특징들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특징을 하나님의 나라 비유로 말했다. 대표적인 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나타난다. 네 종류의 밭 비유(마태복음13:1-9), 밀과 가라지 비유(마태복음13:24-30), 겨자씨 비유(마태13:31-32), 누룩비유(마태복음13:33), 보화와 진주비유(마태복음13:44), 그물 비유(마태복음13:47-50), 집주인 비유(마태복음13:51-52)들이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년 공생애의 핵심 메세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세지는 축사와 치유의 사역을 통해 입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년 간의 사역과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다.

래드(George, E. Ladd)³⁰⁾는 이 비유들은 장차 도래할 을 세대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몇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여 자리 잡아서 피져 나감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미 공격 했다고 말한다.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마음 밭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고, ‘누룩 비유’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 한 드럼에 들어 있는 소량의 누룩과

28)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5), 21-23.

29) 김세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53.

30)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86-97.

같다는 것을 비유하였다. '보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받을 사고 진주를 사야한다고 설명했다.

예수그리스도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안에는 항상 그 나라의 현재적 실체와 미래적 완성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강조점은 현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미래의 문이 이미 지금 여기에 열릴 것을 말했다.(막1:15, 마12:28, 눅17:20·21) 그리스도 안에 미래가 이미 현존하게 된 것이다.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으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³¹⁾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심의 복음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은 공개되었지만, 복음은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은 주어진 복음에 대해 깨닫지 못해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복음은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 가치는 숨겨졌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드러날 것이다. 이 복음이 이 땅에 왔지만,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가치와 복음의 영역을 풀어주는 역할은 곧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고, 교회로서의 기능이다. 교회는 안팎으로 직간접적인 복음을 전해야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복음화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교회를 통해 지역 내에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복음은 하나님나라의 비유와 같이 점진적이고, 확장되어 가게 된다. 이점에 있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로 연관되어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하나님 나라와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바울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그는 교회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가? 그는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로 보았으며 오늘날 그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31) John, Timmer. *하나님 나라 방정식*, 류호준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33.

다.³²⁾

리델보스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구약성경에서 기대되고 예언되어 온,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성취하신 종말론적 실체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를 통해 그 왕권을 행사하심,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역동적인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참이스라엘 또는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이라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규정될 있다.³³⁾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 실체로 통치될 큰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는 통치받을 사람들로 모여질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불가분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 가운데 가장 확고하게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현존한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도전을 주었고, 그 도전에 반응한 제자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와의 새로운 교제 관계로 연결되었다. 이 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메시아 공동체는 하나님의 참백성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곧 참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필수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³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백성을 이루게 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심을 의미하는 역동적 개념인데 반해, 교회는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참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공동체적 이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라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자 목적이다. 하나님 나라 없이 교회란 있을 수 없다.³⁵⁾

32) Robert, Banks.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9), 48.

33) Herma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440-444.

34) George, E.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310.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지만 따로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 주변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통치로 확장되어가야 한다. 교회를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이다. 즉, 진정한 메시아를 알고 그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이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과 관련시키지 않고 교회의 전도적 역할 또는 예언적 역할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또 교회의 소명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³⁵⁾

이런 점을 볼 때, 복음은 영적인 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 복음은 모든 부분에 교회를 통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적용될 수 있는 곳은 인간의 종교적인 범주 안에 하나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결과 복음은 삶과 분리 되어 버려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한 도구로 제한된다. 이 결과 성도들은 교회 안과 밖의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통한 세계관, 복음을 통한 직업관, 복음을 통해 물질관, 복음을 통한 인생관, 복음을 통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한다.

복음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누림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누리려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적용되는 곳으로, 목회자는 복음을 공동체에게 설교를 통해 말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설교를 통해 전달 받은 말씀을 한 주간의 삶으로 적용해 드러내어야 한다. 이 복음을 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간다.

래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집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의해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를

35) George, E.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323.

36) Howard, Syn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11-12.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³⁷⁾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확장 중에 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역사회 속에 확장되어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은 영적 봉사(*diakonia*)이며 현세적 권력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어야 한다. 사람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⁸⁾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일차적인 기관이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한다. 교회는 세상의 가정, 이웃, 시민사회, 정치, 환경분야 등에서 봉사, 권세와의 대결, 복음선포, 사회 구조 및 교회 병행 단체의 구조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기, 무력한 존재로 고통당하는 것을 통하여 증기하기, 악한 체제를 바꾸기 위한 진력,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생명을 내어 놓는 순교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³⁹⁾

교회 안에 있는 은사자들이 일반신앙인 보다 능력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게 되는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성도들이 부러워함과 동시에 자신과 구분된 사람으로 이해되어진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은사자이건 평범한 성도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대상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을 수 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동안

37) George,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188-189.

38)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77.

39)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1), 219.

복음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말씀으로만 해석되어 국한 되어왔다. 이제는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적용되어 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로 확장되어갈 때는 음악, 미술, 체육, 사회, 복지등 제한이 없이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복음은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에 적용되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점에서 예배 또한 종교의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예배, 지역사회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예배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모버그(Moberg)⁴⁰는 교회가 사회화, 신분부여, 친교, 사회연대, 사회안정, 사회통제, 사회개혁, 사회복지, 자선 등 9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사회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교회는 지역사회의 기관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때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 행위 등을 권면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회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사회가 혼란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상태로 사회를 되돌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는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도 상호간에 섬김의 행위를 실천함으로써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해소 할 수 있는 역량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이 사회규범도 자유의지에 따라 지키게 될 때, 교회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넷째,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강조될 때, 교회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회복시킬 수 있다. 모버그(Moberg)는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개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40) Daniel, O. Moberg. *The Church as a Social Institution* (Grand Rapids: Baker BookHouse, 1984), 127-158. 유장춘, “한국교회 목회의 문제점과 교회회사업의 실천과제”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05)에서 재인용.

주체 또는 국가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시했다.

필리피(Philippi)는 기독교 전통 내에서 이제까지 행해졌던 것 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교회봉사의 근원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자체에서 나타냄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봉사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봉사로 이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증된 현재의 하나님 통치가 그의 교회를 자신의 영향권 내로 끌어들이며, 그리고 그 영향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부응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향하는 생활형태 및 작용형태로 유도한다.⁴¹⁾

성도의 관계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성도는 교회를 넘어 생활 속으로 확장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봉사를 발전해 가며, 더 나아가 지역을 넘어 모든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나라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치로 지역 복음화를 실현해 나갈 때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갈 수 있다. 교회는 지역 내에 필요로 하는 구제, 사회복지, 선교등의 복지형태로 접근하여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 교회는 지역사회 복음화를 시행하는 기지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 실현을 위한 장소로 지역 속에 있어야 한다.

41) Paul Philippi, *Christozentrische Diakonie*, (Stuttgart, 1975), 232. Karl, Fritz Daiber.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봉사*, 황금봉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에서 재인용.

제 3 장

지역복음화의 모델

이 장에서는 복음을 지역사회와 긍정적으로 연결한 교회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에서 환경에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의 사례와 갈수록 양극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 도시와 농촌 두 지역이 어떻게 서로 상생해가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소개할 것이며,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다가가는 교회와 다음세대의 가교역할을 하는 두 교회를 통해 교회교육의 대안을 살펴 볼 것이다.

제 1 절 지역사회 복음화 사례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사회는 교회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대한 대안과 모델을 제시해 주는 공동체가 된다.

1. 도시속의 녹색교회

회색빛으로 건물화된 도시 지역사회는 ‘생명’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교회건물 또한 다른 도시속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건물일 뿐이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필요한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교회는 도시 건물 속에 한 건물로서 세워지기 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의 대안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가. 도시속의 녹색교회(청파교회)⁴²⁾

42) 연세대학교 미래교회키퍼런스, *녹색교회 생명목회*, 자료집(2010년), 61-63.

청과교회는 서울 남영역 근처에 있는 107년의 역사를 가진 도심 속에 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처음에 인근에 사는 교인들이 외부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생활중심의 교회이기보다는 예배중심의 교회가 되었다. 교회 앞의 벽을 보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햇빛발전소'라는 간판은 교회 옥상에 여덟평 정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열판에 만들어지는 하루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간판이다. 이 간판을 통해 교회건물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현재발전량, 일일발전량, 누적발전량, CO2발생감소량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을 통해 교회건물에서 매일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 이 곳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나무 200그루가 생산하는 산소양 만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청정에너지가 된다. 이 에너지는 교회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환경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다. 설치비용은 3kw에 3천만원정도고, 여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전량 한국 전력에서 구매하고, 자가발전을 할 경우 부족분만 한전에서 구매하면 된다. 청과교회 햇빛발전소의 한해에 수익은 240만원 정도이다. 이 금액은 전액 주변이웃의 에너지 빈곤층에 사용되고 있다.

예배 후에는 식당 옆 '작은가게'에서 50여종의 다양한 생활제품을 판매한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 물건들은 불품에 따라 감리교 생활협동조합과 연결되어 농촌교회와 연결 후 접수한 다음 판매하는 제품이다. 교회식당의 경우 식사 후에 대부분의 성도는 잔반이 없이 깨끗한 그릇을 퇴식구로 가져온다. 식사인원이 300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주에 교회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는 200g 정도로 한주먹 정도 된다. 교인들로 부터 존경받던 김철수 장로는 김기석 목사가 설교 중에 '기독교인이 생명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기독교인답지 않다'는 설교를 듣고, 그 날로 부터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퇴식구 앞에서 성도들이 남겨놓은 잔반을 다 먹었다. 이 후로 성도들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녹색 꿈 현금'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일주일 동안 탄소배출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 분들, 주로 외국에 출장 갔다 온 분이나, 한 주 동안 먼 곳에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하는 현금이다. 이 현금은 처음에 캄보디아의 우물 파는 곳에 사용되었다. 그 이후 50곳에 우물을 파게 되었고, 현재 몽골에 '은총의 숲'을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해마다 일어나는 황사의 근원지 몽골에 나무를 심어주는 운동인데, 1년에 4천여 그릇의 나무를 심는데 이 현금이 사용되었다.

교회 구석구석에는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맙시다’ 라는 구호와 함께 성도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교회주보는 재생지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구호단체에 1구좌 갖기 운동으로 사회기여에도 성도들을 동참시키고 있다. 어린이날 선물을 토마토 나무를 주어 생명의 귀함을 가르쳤다. 초록가게를 운영하여 아나바다 운동으로 성도들끼리 불건을 나누어 쓰며, 성도들은 스스로 불편해 하는 것을 생활전반에 걸쳐 실천하고 있다. 청파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습관, 구매습관을 바꾸었으며, 이 변화를 통해 청파교회는 지역과 더불어 사는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

나. 농촌(김제들녘교회)과 도시연결(향린교회)⁴³⁾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향린교회는 일찍부터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진 교회이다. 매주 예배가 끝나면 작은 장터가 만들어지는데 파는 것은 주로 쌀을 비롯해 현미, 잡곡, 계란 설탕, 등의 먹거리들이다. 설탕과 커피는 공정무역용품을 이용하고 있고, 농산물들은 김제들녘교회에서 올라온 것들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향린교회와 김제들녘교회의 교류는 교단교회에서 도시농촌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시작되었다. 두 교회는 삶의 터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힘을 합쳐 돕는 길 밖에 없다는 의식에서 동참하게 되었다. 도시교회는 오염된 식탁을 건강한 식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향린교회 내에 사회부에 ‘환경생명위원회’를 두어 김제들녘교회 직거래 위원회를 설치함으로 도시와 농촌교회 간의 본격적인 농산물 직거래를 시작했다.

김제들녘교회에서 2천평의 논에 우렁이 농법으로 논농사를 지으면 도시 향린교회에서는 이것을 전량 수매했다. 초기에는 유기농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시중보다 1.5배 이상 비싼 가격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교회식당에서도 김제들녘교회 쌀로 밥을 짓고, 성도들도 김제들녘교회 쌀을 먹

43) 녹색교회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0), 12.

는다. 이 외에도 김제들녘교회에서 농사를 지은 마늘, 배추, 고추, 콩 보리 등, 때마다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을 비롯해 들기름, 들깨가루 등, 가공물품도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향린교회와 김제들녘교회와 인연이 계속 되면서, 김제들녘교회 주변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분들의 작물을 교회 내 '직거래위원회'의 검수를 받아 향린교회에 팔기도 한다. 그렇게 생긴 향린곳간은 20년의 역사가 있는 아주 의미있는 곳이 되었다. 김제들녘교회가 새로 건축될 때, 향린교회 성도들이 주말마다 내려가서 황토벽돌 짓기를 함께하면서 건축에 참여했다. 또한 수년전부터 지역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고, 해마다 모내기 등 농활도 하고 각종수련회도 김제들녘교회에서 열고 있다.

향린교회는 교회 조직인 '환경생명위원회' 외에도 교인 소모임 '평화나눔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다. '환경생명위원회'는 공적인 일을 처리하고 '평화나눔공동체'는 주말 농장을 하고 생태적 삶에 대해 공부하는 등, 삶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햇빛발전소를 세우자는 이야기도 '평화나눔공동체'에서 나왔다. 향린교회가 있는 위치는 햇빛도 들지 않고, 현재 주변 지역이 재개발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있기 힘든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김제들녘교회의 장소를 빌려 햇빛발전소를 사용하고 있다.⁴⁴⁾

2. 복지중심 교회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크지만, 국가의 복지가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곳곳에 영향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복지적인 차원은 국가보다 교회공동체적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해진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점에 영향을 주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부를 위한 사역(세중양교회)⁴⁵⁾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자리한 세중양교회는 비전센터 중심으로 '세중양문화아카데미'가 열린다. 성악, 발레, 외국어, 미술 등, 200여 강좌를 개설해 백화점 문화센터를 연상시킨다. 강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수강생의 70퍼센트는 성도가 아닌 지역주민들이다. 세중양교회

44)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0), 14.

45) "다시 빛과 소금으로12·세중양교회," *동아일보*, 2011년 10월14일자.

문화센터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특징이 있다. 1999년 문을 연 '연세중앙상담센터'는 한 주 면접 상담 횟수만 400-500건이다. 민간 시설로는 최대 규모이다. 교회 내에 20여 개의 상담 공간이 있고, 미술과 놀이, 음악 상담실을 따로 설치했다. 전문 상담사 50여 명이 아동과 청소년, 가족 등,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상담치료를 담당한다.

세중앙어린이집은 장애아의 교육과 재활을 돕기 위한 공간이다.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와 보육, 교육을 진행하며 현재 30여 명이 이곳에서 재활하고 있다. 교회는 예산의 40퍼센트를 선교와 사회구제 비용에 쓰고 있다.

세중앙교회는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숙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교회와 수양관에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재충전을 위한 방 50여 개가 있다. 숙식을 제공하고 선교사를 위한 부부세미나도 개최한다. 선교사들이 타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선교사 가정 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교회가 후원하는 비정부기구(NGO) '돕는 사람들'에 4000여명이 가입해 국내외에서 1만명을 직간접적으로 돕고있다.

나. 장애인을 위한 사역(구미상모교회)⁴⁶⁾

구미상모교회는 1901년 창립하여 114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남의 대표 교회이다. 이 교회는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내 모범이 되는 교회로 꼽히고 있다. 1998년 시작된 장애인 사역은 현재 영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사랑부'와 중·고등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소망부', 청장년을 위한 '나눔부'로 구별되어 예배 및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 기도 외에도 미술, 체육, 음악, 요리, 풍선아트, 조별활동 등 장애 치료를 위한 다양한 연계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마다 작품전시회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여러 달 동안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장애인 작품 전시회를 위해 구미시 장애인 단체 7곳과 협조해 장애인 연합사역을 이끌어 내기도했다. 장애인 부서 예산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랑과 나눔'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매 연말에 4천여만원의 작정 헌금과, 구미시에 소재한 이마트, 롯데마트의 지역단체 재원 프로그램에 따라 성도들이 모은 마트 영수증 모금액의 0.5퍼센트를 지원받아 장애 학생들에

46) "하나님께 받은 축복 지역사회와 함께,"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2월24일자.

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경북휠체어 이동수리봉사단’은 구미시 뿐 아니라 경북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조직되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휠체어 수리를 받지 못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교회봉사위원들이 전문기사와 같이 찾아다니며, 타이어 교환 및 고장 난 부분의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척수장애인협회’는 구미시 지회의 협조로 내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리하는 동안 장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연탄과 김장김치를 나눠주기도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재정지원도 적극적이다. 구미 황상동 ‘사랑의 방상 공동체’에 재정과 인력을 지원,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연말에는 인근 상모 사곡동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불우이웃돕기와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수시로 생활 형편이 힘든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3.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

현대사회는 인구감소로 인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다. 학업적인 부분들은 학원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지만, 성품과 인성에 대한 지역 내 교육기관은 미비한 수준이다. 교회는 이 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회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 영향을 주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어린이 사역(거창중앙교회)⁴⁷⁾

거창중앙교회는 2004년 이전까지 읍단위의 농촌교회 전형이었다. 2004년 3월부터 유년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창중앙교회에 그해 10월 주일학생 1000명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읍단위 교회가 주일학생만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지 1년 8개월 만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유년주일학교 부흥에 맞춰 자연스럽게 청장년 성도들도 점차 늘어났다. 거창중앙교회는 2003년 2월부터 유년주일학교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로 전환됐다. 한 영혼을 평생 책임지고,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 유년주일학교를 ‘무학년제’로 바꿨다. 또한 중학생 이상 모든 성도들을 ‘교사화’했다.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뿐 아니라 보조교사, 기도교사, 차량교사, 간식교사 등, 주일학교 사역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

47) “거창중앙교회 주일학교 기적같은 부흥,” 기독교신문, 2013년4월5일자.

회의 예산과 인력을 주일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정도로 '자원을 집중'시켰다. '불꽃 목자화'와 '성품사역'을 도입해 주일학생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거창중앙교회 주일 모습을 보면 대략 이렇다. 오전 7시에 교사기도회가 열린다. 7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사명을 일깨우는 순서를 갖고, 반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 8시가 되면 다함께 아침식사를 한 후 흩어져 각자 반 아이들을 태우러 간다. 오전 9시부터 1시간 20분가량 역동적인 찬양과 통성기도, 열정적인 담임목사의 설교 등 말씀 중심의 예배가 진행된다. 11시 장년에배가 마치면 남아 있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다시금 지역에 흩어져 전도를 한다. 오후 2시에 다시금 어린이 오후예배가 열린다. 스킷드라마 등으로 오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이어 반별로 예수님 성품훈련을 중심으로 분반공부를 한다. 오후 5시 장년 주일저녁 예배가 열리는데 2시간가량 부흥회 형식으로 드러진다. 예배가 끝나는 저녁 7시에 교사 마무리회의를 열고, 반별 통계와 개선점 등을 점검하고 전도전략들을 다시금 세운다. 저녁 8시에 다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한다.

주중도 다를 바 없다.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밤마다 2시간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사전공부와 기도를 한다. 영혼구원을 위해 주중에도 학교 앞 등, 현장으로 나가 전도하는 사역 역시 힘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인력이건, 재정이건 거창중앙교회의 모든 자원은 유년주일학교에 집중돼 있다.

나. 연결고리 학제(한강교회)

한강교회 교회학교의 성장 동력은 교육 예산을 늘리고 기존 조직의 틀을 과감히 깨면서부터 비롯됐다. 또한 지역 상황을 고려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과 모두가 준 전임으로 구성된 교육부서 교역자들의 전문교육이 성장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강교회의 교회학교 변화의 시작은 '부서 학제 개편'이 있었다. 교회학교를 꿈야기(2~4세), 꿈동이(5~6세), 꿈나무(7~8세), 비전스케치(초2~초4), 비전칼라(초5~중2), 비춤세대(중3~고3), 푸른세대(20세~25세) 등 7개 학제로 분류했다. '꿈야기'의 경우, 4세가 포함되면서 2~3세 아기들에게 조기교육의 장점이 생겼다. 기어 다니는 아기들

에게 4세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반별활동으로 극복했다.

‘꿈동이(5~6세)’는 연령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해 설교나 예배 때 편리하다고 한다. 꿈나무(7~8세)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급하는 아이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자, 7-8세를 같이 묶었다. 비전스캐치(초2~초4)는 사춘기 전 단계, 비전칼라(초5~중2)는 사춘기 또래만 모아놓았다. 비춤세대(중3~고3)에 속한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으로 혼란을 겪지만, 선배를 보고 미리 경험하며 두려움과 부담을 덜도록 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 이 교회의 ‘창의적 학제’는 교회학교 전체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교회학교 전 부서에 준전임 교역자를 투입시켜 주일 교회학교와 주중 사역을 연계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주중 사역과 주일 사역이 분리돼 있었다. 아무리 주중에 좋은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주일로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역자를 모두 준전임화를 하여, 각자 맡은 학제를 대상으로 주중 사역과 주일 사역을 연결시켰다. 한강교회는 현재 주중 사역으로 야기학교, 키즈학교, 체험학교, 역사탐방, 학원선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중 사역은 교인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회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체험학교는 매달 한 차례 토요일마다 야외체험을 통해 전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동안 물썰매, 낙농, 쿠키 만들기, 다례 체험 등을 비롯해 딸기농장과 미술관, 천문대 견학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 됐다.⁴⁸⁾

제 2 절 요약과 정리

지금까지 교회가 지역사회에 각 분야별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사회가 교회중심의 사업을 통해 공생하며 상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에 환경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구 환경은 자꾸 오염되어 가는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오염되어가는 환경에 대안을 주고 솔선수범하여 환경운동을 생활화함으로 환경과피 지킴이로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48) “한강교회 교육목회,” 기독교보, 2011년 2월7일자.

둘째, 도시와 농촌을 교회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공급함으로써 영향을 줄 수 있다. 도시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원하고, 농촌은 생산된 농산물이 중간판매 없이 직접 공급하여 생산비를 보장받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농촌교회에 열악한 환경을 도시교회와 자매결연함으로써 미자립교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나님나라 확장에 서로 결연될 수 있다.

셋째, 교회는 지역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사회기관이 지역주민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교회가 평일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교실을 열어 둔다면, 지역 주민은 문화적 생활에 대한 결핍을 교회를 통해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사회에 정보창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넷째, 교회는 지역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 장애인, 미혼모, 고아, 외국인등,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늘진 곳에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교회정책적인 지원도 고려해 봐야 한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많은 돈을 들여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제는 반대로, 국내에 일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를 한다면 더 효과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회는 지역주민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교회는 교회 내에 자녀들과 지역주민의 아이들에게 지성, 감성에 영향을 주는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인성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각 지역의 특색과 대상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대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증진과 획일화된 교회 사역이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역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제 4 장

울산지역과 교회의 역사

제 1 절 울산광역시 현황과 특징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방어진제일교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어진제일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울산광역시의 도시화 역사

울산은 태화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방어진, 염포, 장생포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왔으며, 서쪽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북도 청도군, 남쪽으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상남도 양산시, 북쪽으로는 경상북도 경주시를 접하고 있다.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종주하여 고현산, 가지산, 신불산, 운문산 등의 준령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고, 태화강 하류에는 현재 신시가지로 변한 삼산평야가 있었으며, 경주방면인 북에서 내려온 동천은 태화강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흐르고 있다.

울산만에는 울산항과 울산본항, 미포항, 장생포항, 울산신항, 방어진항, 정자항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풍부한 공업용수 및 경안질지반 덕분에 공장건설은 물론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래 50여 년 만에 2011년 수출 1,015억 달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1995년 울산시·군이 통합되어 면적이 1,060.46제곱킬로미터로 7대 특·광역시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에 걸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국

도 등 3개의 고속국도와 5개의 일반국도, 철도, 항공, 항만 등 시통괄달의 교통망 확보로 산업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울산은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지난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세계적 산업도시이며, 고속철도 역사 개통에 이어 앞으로 33선석의 신항만을 울산항에 추가 건설하고 동북아 오일허브를 구축하여 새로운 항만경제권을 형성함과 동시에 21세기 국제무역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울산지역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등 이름난 문화재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영남알프스로 유명한 가지산·신불산·간월산과 진하·일산 해수욕장, 강동·주전 해변, 대왕암 공원 등 산악과 해안이 공존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간절곶은 일출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태화강대공원, 울산대공원, 울산체육공원 등 도심 공원들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부활한 태화강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역사와 문화, 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⁴⁹⁾

2. 울산광역시의 특징

울산은 국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 1인당 연간 총생산액(2007년말 기준)이 4297만원이다. 같은 해 서울(2073만원)의 2배가 넘고, 부산(1452만원)과 대전(1385만원)의 3배다. 인천(1685만원)은 울산의 절반에 못 미치고, 전국 평균(1883만원) 또한 그렇다.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4만달러를 웃돈다.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생산성이다. 울산 근로자들의 평균연봉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07년 기준 3151만원이다. 전국 평균이 2428만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723만원이 많다. 약 30퍼센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에서 가장 적다. 2008년 기준 인구 1만명당 168명이다. 전국 평균 308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울산의 경제의 핵심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등 3대 주력산업이 주도하는 수출이다. 2008년 울산의 연간 수출액은 788억 달러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다. 전국 대비

49) 울산광역시, 2014년 시정백서, (울산: 울산광역시, 2014), 9.

수출액 비중도 18.7퍼센트를 차지한다. 국내 모든 수출의 5분의1에 육박하는 규모다. 2010년 울산의 수출액 목표는 1000억달러였다.

현대자동차가 본거지인 자동차 도시답게 자동차(승용차) 보유율 또한 높다. 2008년 기준 인구 100명당 29.3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다. 울산의 도시면적은 1057제곱킬로미터이다. 서울의 605.28제곱킬로미터보다 1.74배 크기다. 대전의 540제곱킬로미터에 비해서 거의 2배의 크기이다. 인천도 1010제곱킬로미터에 그쳐 울산에 못 미친다. 울산은 한때 공해 도시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국 7대도시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맑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2007년 자료에서 울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14조8000억 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최고인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위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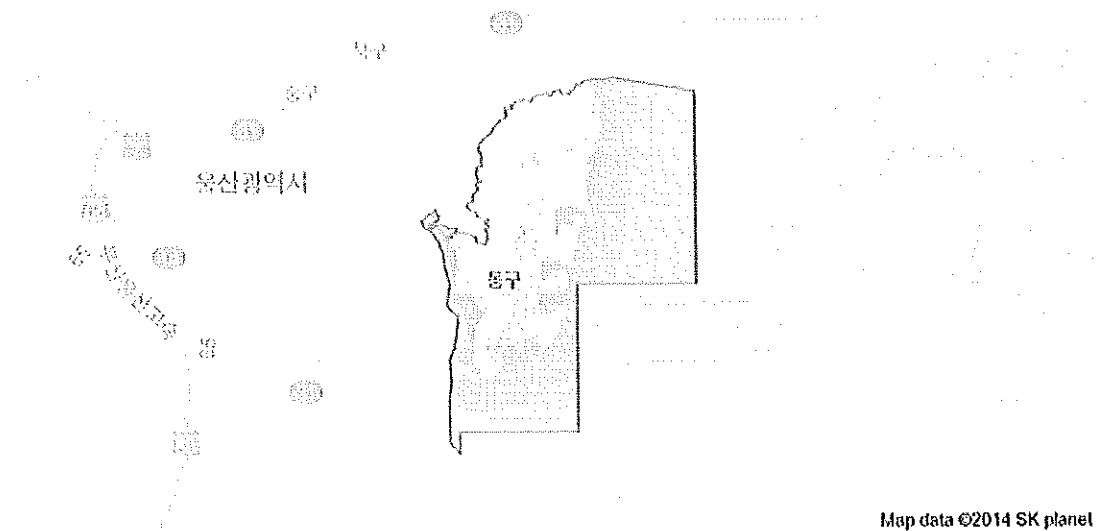
제 2 절 동구(방어진) 주변 상황분석

1. 지리적분석

동구는 울산시의 끝자락에 있으며 삼면이 바다인 곳에 위치해 있다. 해양으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바다지형을 이용한 휴양지가 형성되어 있다. 방어진은 극동편에 위치한 반도형으로, 동남쪽은 동해에 접하고 있으며 세계 조선공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계열 기업체가 대거 입주해 있다. 또한, 청정해역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어업의 기지 역할을 하는 방어진항과 주전,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일산해수욕장, 대왕암, 울기등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울산만, 북쪽으로는 북구 강동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 부산까지는 80킬로미터, 북쪽의 대구까지는 90킬로미터, 경주까지는 55킬로미터, 서쪽의 밀양까지는 89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하고 일본과는 대한 해협을 건너 불과 16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다.

50) “가장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도시,” 조선일보, 2009년 9월15일자, D1.

<그림 1> 울산시 동구 지도



2. 사회·경제적 상황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동구에 위치해 있다. 동구는 삼면이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구로서 중공업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 곳에 현대중공업이 위치해 있다. 현대중공업은 1970년 3월에 발족해 울산·군산·음성에 2만5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은 울산동구에서는 608만 1천제곱미터의 규모로 자리잡고 있다. 조선 사업을 통해 해양, 플랜트, 엔진기계, 전자시스템, 그린에너지, 건설장비사업을 하고 있다. 창사 이래 2013년 말 까지 총 48개국 282개 선주사에 1,800여척(특수선 제외)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조선사업본부는 2012년 세계최초의 '선박 건조량 1억GT' 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내 최대 건조실적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현대중공업은 동구지역에 사회복지와 의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시설(울산참사랑의집), 영육아 보육시설(현중어린이집)을 건립을 했다. 동구지역 도로시설물인 방어진공원 순환도로, 현대백화점 동구점 주변도로, 울산대학교병원 주변도로, 현대예술관 주변도로, 남목어린이집 및 전하1동 주민센터를 위해 부지를 기증 해 왔다. 시내 주차장을 동구지역 내 12곳에 조성했으며, 현대예술공원, 전화동 어린이 공원, 명덕호수공원, 큰마을저수지 살림공원, 동부도서관, 대왕암 공원내 대왕교를 설치했으며, 사원아파트 1만8천 세대를 공급해 사원의 주택보급

을을 95퍼센트로 지원했다. 동구지역 내 울산최초의 종합병원인 울산대학병원을 세워 전문병원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학교법인을 동구 내에 설립하여 유치원(동부유치원·서부유치원), 현대학원(현대중·현대고등학교·현대정보과학고등학교·현대청운중·현대청운고등학교), 공업학원(울산대학교·울산과학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주부를 위해 ‘현대주부대학’을 만들어 여성평생교육의 장으로 1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시켰다. 서부·강도·전하 등 4계절 잔디 축구장을 건립하여,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들의 문화증진을 위해 현대예술관, 한마음회관, 미포회관, 동부회관, 서부회관, 대송회관, 동부2관의 7개 복지시설을 두고 주부문화센터,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언제든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⁵¹⁾

동구의 인구는 1909년 12월말에는 4,911명에서 1962년 특정 공업지구지정까지는 16,491명으로 연평균 6.4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공업지구 지정에 따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근로자 유입으로 1997년까지 불과 35년 사이에 12배(연평균 34.8%증)의 폭발적인 증가로 200,980명이었으나, 이후부터는 염포동의 북구 편입과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 구조조정, 저출산율, 노후된 주거지 재건축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이며, 2014년 6월 기준으로(외국인 포함)는 178,345명이다. 동별로 인구는 방어동이 42,862로 가장 많고, 일산동이 7,705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동별 인구, 인구밀도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인구 및 세대수 현황⁵²⁾

동 별	세대수	인 구 수			외국인수			총 인 구 수 (내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67,714	178,345	94,255	84,090	6,113	1,530	1,583	184,458	98,785	85,673
방어동	16,973	42,862	23,128	19,734	2,598	2,105	493	5,460	25,233	20,227

51) “사회공헌활동 사회인프라”, 현대중공업 Online: http://www.hhi.co.kr/society/society03_03.asp

52) 울산광역시동구, 2014구정백서 (울산: 울산광역시동구청, 2014) 34. Online: http://www.donggu.ulsan.kr/kor/notify/data_main_bnr01.php

일산동	3,693	7,705	4,167	3,538	202	130	72	7,907	4,297	3,610
화정동	7,545	18,224	9,584	8,640	396	221	175	18,620	9,805	8,815
대송동	5,660	15,341	8,087	7,254	120	46	74	15,461	8,133	7,328
진하1동	6,948	17,465	9,619	7,846	905	684	221	18,370	10,303	8,067
진하2동	8,370	24,363	12,566	11,797	247	144	103	24,610	12,710	11,900
남목1동	4,155	11,408	5,928	5,480	516	310	206	11,924	6,238	5,686
남목2동	9,247	26,235	13,568	12,667	979	792	187	27,214	14,360	12,854
남목3동	5,123	14,742	7,608	7,134	150	98	52	14,892	6,706	7,186

3. 종교적 상황

울산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기타 종교 등 교당수가 모두 688개소이다. 교직자수는 2,414명, 신도수는 245,229명으로 조사됐다. 울산지역 내 불교사찰 및 기관은 223개소이며 신도는 413,726명이고, 기독교 교회는 428개로 성도는 99,571명, 천주교는 19개소에 66,991명, 유교는1개소에 759명, 기타종교 집회소는 17개의 9,265명이 른다.⁵³⁾ 기타종교에서는 원불교, 증산도, 천도교, 대종교등을 포함시켰다.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⁵⁴⁾ 1,192,262명 중 기독교인은 8퍼센트에 해당된다. 대전광역시는 기독교인이 1,438,551명중 20퍼센트에 해당하는 295,330명인데 비하면, 울산은 7대 광역시 중, 기독교 인구가 가장 낮은 수인 것을 보게 된다. 울산지역 내 개신교 현황을 살펴보면 교회수는 428개로, 중구에 87개, 남구 12개, 동구 81개, 북구 55개, 울주군 80개로 분포되어 있으면 성도수도 전체 69,306명에서 중구 14,416명, 남구22,219명, 동구19659명, 북구6,203명, 울주군6,809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구지역전체 인구 184,458명중 기독교인은 19,595명은 11퍼센트에 해당된다. 동구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사원 및 연결산업이 많다. 이 인구는 외부에서 유입되어 주거하고 있다. 지역에서 종교인이 되기보다 타지에서 종교인이 되어 동구내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진다.

53) "지역내 종교단체 현황," 2000년 울산광역시종교행정 및 각종통계자료, (울산: 울산광역시, 2001), 496.

54) "시도 및 이동규모별 이동진수," 2014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통계청. 14.

4.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현황⁵⁵⁾

동구 안에는 현대그룹이 사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누리며, 문화교실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복지시설이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민간적인 차원의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동구지역 복지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1	종합복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봉수로 155(화정동)
2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월봉10길 14(화정동)
3	지역자활센터	동구지역자활센터	상진1기 21(방어동)
4	여성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내진길 18(방어동)
5	다문화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학길59(화정동)
6	청소년	동구청소년문화의집	봉수로 155
7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남목9길 13
8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목9길 13
9	노인	동구노인요양원	방어진순환도로 1271(서부동)
10		다비다노인요양원	봉수로 28(방어동)
11		가온실버홈푸른실복지센터	후름길 2가동 101호
12		동구노인복지관	명덕 6길
13		전하노인복지관	진성12길 120(전하동)
14		동울산복지센터	명덕6길 33(서부동)
15		동구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봉수로 115(화정동)
16		화정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진성12길 120(전하동)
17	장애인	울산참사랑의 집	방어진순환도로 1355(서부동)
18		밀알의 집	번덕7길 7(화정동)
19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	문현2길 41-1(방어동)

55) 복지시설 현황은 2014년 10월 25일(토) 울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관내사회복지시설 주관으로 대왕암공원에서 개최하여 '2014년 사회복지 박람회'에 안내장에 소개된 공식 참석 명단임.

20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	문제로 3(방어동)
21		사랑을타리	화정8길 10(방어동)
22		밀알주간보호센터	문재5길 391(방어동)
23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봉수로 155(화정동)
24		다현주간보호센터	녹수길 25(전하동)
25	아동	우리동내공부방(희망을나누는집)	변덕로 10(일산동)
26		해누리지역아동센터	방이진순환도로 50(방어동)
27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봉수로 325(방어동)
28		바드래지역아동센터	진성12길 128
29		자람터지역아동센터	남목16길 6(전하동)
30		화정지역아동센터	월봉10길 14(화정동)
31		흰돌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월봉6가길 3(방어동)
32		큰빛지역아동센터	진성6가길 22(전하동)
33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브드레길 29(전하동)
34		푸른솔지역아동센터	등대4길 25(방어동)

위의 복지시설을 정리하면 종합복지시설이 2개소, 자활센터가 1개소, 여성관련 복지시설 1개소, 다문화사회복지 1개소, 청소년관련 3개소, 노인관련 8개소, 장애인관련 8개소, 아동관련 10개소가 동구지역 내에 있다.

동구 내 종합복지시설 2개소를 제외한 다른 복지시설들은 민간차원에서 세워진 복지시설로 동구전체의 사회흐름에 있어 복지의 영향을 주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시설적인 면에서도 빈약하고, 활동범위도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을 위한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개이다. 동구전체 인구대비하면 현저하게 빈약한 상태이다. 또, 가정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센터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청복지시설과 민간시설로 동구전체의 복지지원은 한계가 있다. 정부기관이 이런 동구의 현실을 파악하고 복지적인 해택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 부분을 종교기관이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섬긴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복지의 손길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5. 울산지역 초기 기독교 배경

울산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895년 이회대가 중구 병영동에 병영교

회를 세우면서 부터이다. 병영교회는 1910년 송정교회를 분설했다. 1899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에 은편교회가 세워졌다. 1901년 울주군 두서면에 전읍교회가 세워지고, 190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제일교회가 발족돼 중구 성남동 71번지에 제일교회를 세웠다. 제일교회는 그 후 남구 신정 1동으로 건물을 옮겼다. 1906년 중구 성남동에 울산제일교회, 1909년 삼동면에 보은교회, 언양읍에 동부교회, 반천교회, 상북면에 궁근정교회가 세워졌다. 1910년에는 월평교회, 서생교회, 지당교회 등이 세워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 뒤에 이어 1910년 안경옥 장로가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장검교회를 세웠다.

울산지역 개신교 교단별 현황을 보면 중구지역에는 84개의 교회가 있으며, 남구 지역 120개, 동구지역 79개, 북구지역 55개, 울주군지역 79개로 전체 417개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그리스도교, 군소교단까지 포함한 숫자이다.⁵⁶⁾

5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 (울산: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495-497

제 5 장

방어진제일교회의 역사

제 1 절 설립동기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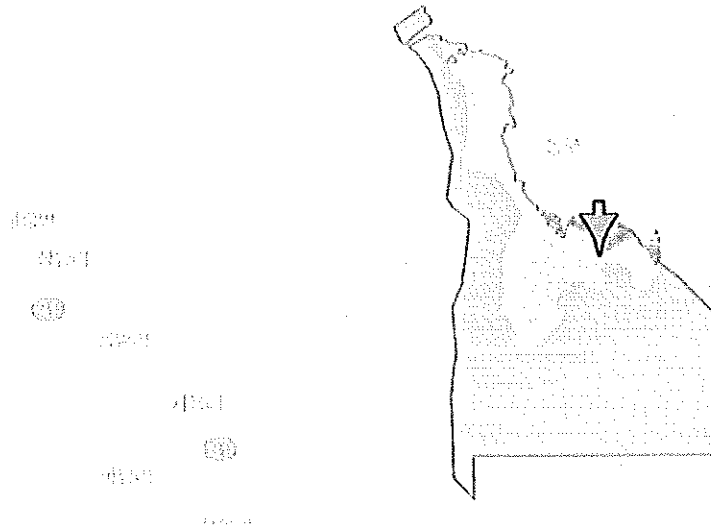
1925년 8월2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소속의 방어진교회가 설립됐다. 방어진교회는 방어진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 현재 방어진제일교회의 시작이 되었다. 방어진교회는 부산 감만동에 소재한 감만교회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울산 병영사람 송정한 영수가 교회설립에 앞장섰다. 경남 노회의 파송을 받은 오형선 장로가 초대교역자로 시무했다. 1926년 10월 1일 송정한 영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초가 한 동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세웠다. 교회의 위치는 마닷가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방어진제일교회는 1925년 8월2일 조선예수교 방어진교회로 창립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 속한 교회였다. 본 교회는 방어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2015년 기준으로 91년된 교회이다. 1대는 오형선 장로였고, 2대에 복회자인 손양원목사가 초석을 놓게 되었다.⁵⁷⁾

손양원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 이라는 수식으로 한국기독교사에 큰 업적을 냈다. 당시 손양원목사는 1926년부터 1932까지 7년 동안 외지 전도사로 있으면서 밀양수산, 울산방어진, 울산남창, 부산, 감만동, 부산 남부면을 다니며 전도사역을 펼쳤고, 본 교회는 순회전도사역의 한 교회였다.⁵⁸⁾

57) 방어진제일교회, “교회약사”, Online: <http://www.ubjc.or.kr/introduction.asp?ifile=i21920>

58) 손양원목사(1902년 6월3일-1950년 9월28일)는 당시 본교회에 전도사 직분으로 사역을 했다. 손양원목사는 경남 함안에서 손중일 장로와 김은수 집사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손양원 목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였던 여수 에양원에 설치된 에양원교회에서 구호활동과 신앙활동을 펼치고, 1940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수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1948년 여순사건으로 두아들이 순교를 당하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 양 아들로 삼았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순교당했다. 손양원 목사를 기리기 위해 1994년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신흥리

<그림 2> 교회가 위치한 곳



1. 방어진제일교회 역사의 요약과 진단

방어진제일교회는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터전과 더불어 세워졌다. 그러나, 초기 본 교회 내에 갈등이 계속 있어 왔다. <표 4>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교역자가 바뀌는 일이 21번이나 반복되었다.

<표 4> 역대 교역자 사역기간

대	년도	교역자	사역기간
1	1925년	오형선 장로	만 4년
2	1928년	손양원 전도사	만 2년
3	1930년	최명수 전도사	만 1년
4	1931년	홍성만 전도사	만 1년
5	1934년	김성훈 전도사	만 3년
6	1936년	정시화 전도사	만 6개월
7	1940년	배종수 전도사	만 3년
8	1943년	허용구 전도사	만 2년

13-207번지에 '손양원목사순교기념관'이 건립되었고, 1995년8월15일 국가 독립 유공자로 선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손양원의 목사의 생애" Online: www.aeyangwon.org 자료실 참조.

9	1945년	최명수 전도사	만 3년
10	1948년	김영진 전도사	만 2년
11	1950년	박병덕 목사	만 3년
12	1953년	김명순 목사	만 3년
13	1956년	한석용 강도사	만 6개월
14	1956년	김재하 전도사	만 4년
15	1960년	김영술 목사	만 4년
16	1965년	김동영 목사	만 6개월
17	1965년	김성택 목사	만 1년
18	1966년	박삼용 전도사	만 6개월
19	1966년	전원태 전도사	만 2년
20	1979년	배상규 목사	만 2년
21	1981년	서명원 목사	만 2년
22	1983년	김상복 목사	만 32년(2015년 기준)

평균 2년 6개월 마다 담임목사가 바뀌었다. 본교회의 역사는 3기로 나뉘 볼 수 있다. 제 1기(1925년 - 1965년) 40년을 태동기, 제 2기(1969년 - 1982년) 13년을 격변기, 제 3기(1983년 - 2014년) 31년을 부흥기로 정리할 수 있다.

1기의 교회는 한국전쟁 격동기를 거치면서 당회가 구성되지 않아, 16번의 담임교역자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때 두번이나 고려파로 분립해 나갔다가 다시 들오는 혼동도 있었다. 당시 영남의 주교단은 고려파였다.

2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당을 증축하게 되었다. 교회의 증축은 교회가 하나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전원태 전도사 또한 만2년을 사역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되었다. 1979년에 들면서 20대 교역자 배상규 목사가 부임하게 된 후 그 동안 증축공사를 해오던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당예배를 하면서, 정방조 장로를 장립, 백기난, 강금안 권사를 취임시켰다. 21대 서명원 목사가 부임하여 강성택, 권환봉, 이동식, 조인호 박만식, 강종택, 김재봉 집사를 장립시켰다.

3기에 들면서 장립자 중심으로 22대 김상복목사가 청빙되었다. 당시 교회는 김상복 목사의 청빙 건을 두고 울산통합노회와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다. 당시 교회는 6개월간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였다. 본 교회는 전통성이 있는 교회였고, 손양원목사가 시무한 교회였기에 울산통합측노회에서는 자신들이 모르는 통합측 목사가 청빙되는

것을 반대했다. 장립을 받은 7명의 집사는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김목사를 담임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교회는 당시 합동정통교단⁵⁹⁾을 바꾸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김목사가 목회를 시작할 초기 교회는 전임자 때 건축 후 남은 부채가 있었고, 교인들은 자주 바뀌는 담임목사의 모습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다. 이런 교회의 어려움은 지역주민에게까지 소문이 퍼져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교회의 신뢰감은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목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안정을 찾게 되었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었다. 1980년 후반을 지나면서, 동구지역에 현대조선소가 세워지면서 도시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현대조선소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동구지역에 현대계열 공장근로자들이 유입됨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회주변에 있던 야산과 농지가 주택지로 바뀌고, 교회 건물은 주택가 중심에 서있게 되었다. 김목사의 부임 전 성도 수는 주일학교를 포함해 100명의 성도였지만, 32년이 지난 지금(2015년기준) 장년출석수 1,500명, 주일학교 400명으로 부흥하게 되었다.⁶⁰⁾ 경상도 지역적 특색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무속신앙이 강한 어촌에서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방어진은 어촌지역 어민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지역이다. 영적황무지인 지역에서 본 교회가 대형교회로 자리 잡아 갈 수 있었던 것은 김목사의 목회철학과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제 2 절 방어진제일교회 목회 활성화시도

1. 김상복 목사의 목회관

김상복목사⁶¹⁾는 부임했을 당시, 교회 안에는 당회가 없었다. 직원도 없었다. 홀로 사찰 겸 교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목사는 행정업무와 모든 설교를 혼자서 해야했다. 김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며 집중한 사역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통해 상처 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었다. 김목사는 교인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며 심방

59)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백석)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

60) 교적등록 수는 4,000명 정도로 볼 수 있다.

61) 약력)영남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켈리포니아신학대학원, 경력)우라교회, 천촌교회, 안강중앙교회, 화천교회에서 담임으로 사역하다가 1983년에 본 교회로 청빙되었다.

을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담임목사가 성도의 집을 심방하는 것은 놀랄 일이었다. 경상도지역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도가 목사를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목사가 자신의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도 모든 성도의 집을 목사가 다 찾아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더욱 그러했다. 그 동안 부임했던 담임목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있었기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고용자와 피고용인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외관상 교회였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김목사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다니며 심방을 통해 교제를 나누었고, 가정의 대소사를 상담하며 친밀감을 가졌다. 이런 노력으로 성도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부임 후, 3년이 지난 1986년에 본 교회 최초의 위임목사가 되었다.

가. 성도와 함께하는 목회

김목사는 성도와 함께 하는 목회를 지향했다. 교회 옆에 사택을 두어 언제든지 성도들이 찾아와 상담할 수 있도록 사택을 열어두었다. 김목사는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동선을 잘 알 수 있도록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있었다. 새벽기도하는 자리와 예배드리는 자리 등, 담임목사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어왔다. 이런 모습은 성도들이 언제든지 담임목사를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었고, 성도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담임목사는 교회 밖의 여러 모임으로 인해 강단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김목사는 외부요청을 사양했고, 자신이 맡은 교회에만 집중했다. 심지어 매년있는 휴가조차 사택에서 보내며 성도들과 함께 하는 목회로 헌신했다.

나. 말씀중심 목회

김목사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철야, 새벽기도까지 자신이 직접 강단에서 설교를 했다. 부교역자가 있음에도 32년 목회의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강단을 지키며 말씀을 전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자인 담임목사의 설교를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서 들을 수 있기에 유익했다. 이런 모습은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주일강단은 제목설교 중심으로 했으며, 수요일예배는 강해설교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설교에 자신의 삶을 적용해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교를 했다. 달변가는 아니지만, 성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탕으로한 열정적인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일반교회 수요일예배는 주일예배 보다 참석수가 낮다. 본 교회 수요일예배는 다른 교회에 비해 출석율이 높다. 이 또한, 김목사가 직접 설교를 했기에 가능했다. 김목사의 이런 목회관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주일 낮, 주일저녁, 수요일저녁예배는 의무로 참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김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의 설교를 맡긴지는 불과 몇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목회철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도중심 목회

김목사는 기도중심의 목회를 했다. 성도보다 먼저 나와 기도했고, 더 많이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기도 많이하는 목사' 라는 별명을 갖게 했다. 기도중심의 목회는 교회 안에 영적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을 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으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기도를 통해 일을 진행시켰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기도 중심의 목회는 오히려 문제 앞에 교회를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도의 결과로 1년에 3차례 전교인 대상으로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⁶²⁾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 중에는 주일학교에서 부터 노년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교회, 주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행사로 진행하게 된다. 보통 기도 운동은 주로 장년층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보기도운동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여 기도의 중요성과 응답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맞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2. 교회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교회는 성장하면서 조직으로 구성 되었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이 전해지기

62) 2005년부터 시작한 '릴레이 중보기도'는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41회를 맞이하고 있다.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질서와 교회법을 뒤로하고 목회자가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본 교회 조직은 공동의회가 최고기관으로 그 아래 당회와 제직회를 두었다. 세워진 20명의 시무장로 중심으로 20개 부서, 예배부, 재정부, 재산관리부, 차량부, 장학부, 구제부, 복지부, 봉사부, 체육부, 경조부, 전산부, 출판부,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전도부, 세가족부, 교육위원회, 의료선교부, 방송부, 식당운영부를 세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 속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가. 직분자 제도

본 교회의 직분자는 교인 전체 인원대비 안수집사와 권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집사직분을 두 부분으로 세분화 하여 서리집사와 집사제도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교회 직분자 연수표

직 분	자 격	기 간
서리집사	출석 5년이상	5년
집 사	서리집사된후 10년이 된자	15년
권 사	공동의회 (2/3)피택 → 10개월교육 → 취임	18년이상
안수집사	공동의회 (2/3)피택 → 10개월교육 → 취임	18년이상
장 로	공동의회 (2/3)피택 → 10개월교육 → 장립	21년이상

서리집사는 본 교회 5년 이상 출석한 자 중, 신앙의 덕목을 갖춘 자 중에 세워진다. 안수집사와 권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의회에서 2/3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세워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서리집사와 집사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교회는 집사를 두 영역으로 나누어 직분자를 세움으로 교회 입직에 신중을 기했다. 이런 제도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⁶³⁾ 피택이 된 후에는 10개월간

63)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측 헌법 제8장 서리집사, 제59조 서리집사의 자격과 선택에서 「서리집사는 남, 녀 부흥 입교인 중에서 24세 이상 인자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해임도 이에 준한

의 교육을 필수로 진행하며, 10개월 동안 3회이상 결석시 피택이 무효가 된다. 직분자 교육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한다.⁶⁴⁾ 서리집사와 집사 사이, 집사와 권사 사이, 안수집사에서 장로 피택 사이에 10개월의 교육이 있다. 10개월의 교육과정에서 3번의 결석이 있을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인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규정과 법보다는 은혜라는 이유로 자격미달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한다. 이런 관행이 깊어지면, 교회의 부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절차와 이에 상응하는 교육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 절차로 세워진 교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2015년 향촌직 수⁶⁵⁾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남집사	여집사	여서리집사
명수	20명	48명	47명	242명	121명	187명
전체	665명					

나. 교구권사 제도

목회자 혼자서 증가하는 성도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지방교회의 빈약한 제정으로 부교역자를 청빙하여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려웠다. 교역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임지에 옮길 수도 있고, 길어야 2~3년 교구를 담당하다가 다른 교구로 이동하면 그 동안 정들었던 성도들에게 섭섭함을 주게 된다. 새로운 교역자가 교구를 담당한다해도 성도가 교역자에게 마음을 열기까지는 일정한 과정과 시간

다.»로 되어있다. 본 교회는 5년 출석한자로 규정을 강화시켰다. 제41조 집사의 자격에서도 「집사의 자격은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부흥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본 교회는 15년으로 강화시켰다. 제43장 권사의 자격에서 「권사는 40세 이상된 부흥 입교인으로 여집사(서리집사 포함)5년 이상 근속한 여성도이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교인의 모범이 되고 여집사를 거친 자라야 한다」로 되어있다. 18년으로 강화 시켰다. 본 교회는 교회의 지역과 특성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 헌법 (서울: 예장백석출판사, 2013), 157-162.

64)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교재 중, A.제자훈련의 기초, B.구원의 진리, C.신앙인격과 삶, 의 과정으로 10개월간 실시한다. 이 커리큘럼은 교회 안에 제자대학과 같은 과정이며, 이 과정에 피택대상자(권사,안수집사,장로)는 함께 교육을 받게 된다.

65) 방이진 제일교회, 2015년 요람 (울산: 방이진제일교회, 2015) 참조.

이 요청된다. 이런 교역자의 계속되는 이동은 목회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되기도 했다.

김목사는 이 대안으로 평신도 사역자를 목회에 동참시켰는데, 이것이 '교구권사 제도'이다. 일반교회에서의 심방전도사의 역할을, 본 교회에서는 시무권사 중 추천된 자를 중심으로 '교구권사'라는 직함을 주어 사역하게 한다. 교구권사는 담임목사와 교구목사의 심방을 돕고, 교구 속에 있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교구권사제도'가 교회 안에서 정착되기까지 애로사항이 많았다. 보통 교회는 교역자가 개인의 신앙상담을 하는데, 권사가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공동체 안에 소문의 원인이 된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목회 초기부터 교구권사를 세우고 교육하면서, 현재는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교인들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심방전도사 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다. 현재 본 교회는 8개교구로 나누었고, 부목사 한명이 두개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교구에 2명의 교구권사를 세웠으며, 전체교구에서 16명의 교구권사가 부목사와 함께 교구사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구권사 제도의 긍정적인 점은 첫째, 평신도가 목회 사역에 직접 동참함으로 목회자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목회를 이루어 간다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리더의 부재가 교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신뢰받은 교구권사 제도는 교구를 튼튼하게 하는 허리역할을 하게 했다. 교역자는 정기적으로 자리가 변동되지만, 교구권사는 교구 내에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없게 되었다. 셋째, 예산에 의해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닌, 목회의 필요에 의해 평신도 사역자가 동참하게 되어 사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 목회활동을 돕는다는 것은 심방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교구권사가 직접 상담자가 되어 성도의 가정을 돕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단점이 있다면 첫째로, 평신도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집례하지 못한다. 타 교회에서 이동해서 온 성도에게는 이런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 한 교구에 오랫동안 교구권사로 활동하다보면 고착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로, 여성도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목회는 여성중심의 사역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을 신앙으로 성장시키면, 남편은 그 신앙에 따라오게 되는 구조로 보았기에 심방 대상의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된다. 이런 점에서

‘교구권사제도’는 여성에게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남성 관리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남성에 대한 불편함이 여성교구권사의 사역에 제한을 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회에는 목회자와 교구권사회가 협력하여 교구 내에 각 가정을 돌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목회 초기에 교구권사는 8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8교구에 2명의 교구권사가 세워져, 총 16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 바나바⁶⁶⁾ 활동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바나바제도를 도입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물려오는 새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에 바나바 도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교회 안에는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바나바훈련과정이 진행되면서 새가족 정착을 돕기 위해, 훈련된 청장년의 성도들이 양성되기 시작했다. 바나바사역을 통해 찾아오는 새가족이 2011년에는 75.3퍼센트나 정착하게 되어, 본 교회는 ‘바나바교육원’에서 모범교회로 선정될 만큼 큰 성과를 보였고, 여러 교회에서 찾아와 참관하기도 했다.⁶⁷⁾

라. 어와나(AWANA)⁶⁸⁾ 도입

1990년에 들면서 교회학교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 당시 한국에도 잘 소개되지 않은 어와나를 1991년에 교회학교에 도입하게 되었다. 어와나는 수원중앙침

66) 바나바사역이란 김명남목사가 개발한 새가족정착프로그램이다. 성경에 바울을 도운 바나바(권위자)를 모델로 새가족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나바프로그램은 10가지 핵심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새가족을 만나고 찾아가는 일을 한다. 2.새가족과 일대일로 짝지어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3.7주간 새가족과 만나는 사역이다. 4.교회에서 짝지어준 새가족과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다. 5.주어진 교재로 함께 공부한다. 6.매주일 새가족에게 교회의 중요한 분을 세 명이상을 소개시켜준다. 7.맡겨진 새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한다. 8.새가족이 교회에 나올 때 사랑과 관심과 친절을 보여준다. 9.일주일동안 실행한 사역을 ‘바나바위원회’에 보고한다. 10.새가족 공부일지에 기록한다. 바나바 교육원, Online: <http://www.bmc153.com> 참조.

67) 바나바 성공사례보고 영상은 <http://tvpot.daum.net/v/enDWC80B4rA%24> 에서 볼 수 있다.

68)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이라는 뜻으로 디모테후서2장15절의 말씀을 영어성경(KJV)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다. 1950년도에 Art Rorheim이 설립하여 세계 114개국과 미국 내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Awana를 통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0년대에 소개되었다. Awana clubs, Online: <http://www.awanakorea.net> 참조.

레교회와 함께 지방교회에서는 최초로 본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게임시간 40분, 핸드북시간40분, 교제시간40분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주일학교 교육은 교사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정도의 교육이었고, 지방교회에서는 교육 자료에 있어서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때, 어와나 도입은 교회학교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어와나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에 접근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청년들은 어와나 교사로 양성되어 교회사역을 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 되었다. 지금도 교회는 어와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마. 해외 및 국내선교

1997년부터 교회는 본격적인 해외선교를 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회에 해외선교의 필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이귀연 권사를 통해 필리핀에 대한 선교사역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1997년 12월 필리핀 현지에 선교법인 '월드서울미션센터(WSMC)'를 설립하게 되고 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이경희 목사를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교회의 선교정책은 필리핀 현지인을 신학공부를 시켜 선교사로 세우고, 제3국으로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결과 필리핀선교센터를 통해 교육받은 현지 사역자 10명을 세우게 되었고, 필리핀 내에 6개 교회와 '랑카안고등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필리핀 선교는 본 교회가 해외선교에 눈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작으로 탄자니아에 본 교회 정인원 목사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해외16곳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교회학교와 청년들은 필리핀과 일본에 지속적인 단기선교로 현지를 경험함으로써 선교관을 열어주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25곳의 미자립교회와 15곳의 기관과 단체를 선교지원하고 있다.

제 3 절 방어진제일교회 지역사회 섬김

목회 초기부터 교회사역과 지역사회는 유기적관계로서 목회의 대상이었다. 교회의 부흥에만 집중하지 않았고, 지역의 관심에만 집중하지도 않았다. 본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염두 해 두고 사역을 펼쳤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로 한 심김은 교세확장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장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급식운영

IMF가 발생한 1998년 국가적인 어려움과 함께 지역주민 중에 식사를 못하는 주민들이 나타났다. 교회에서는 목요일에 한번 점심에 결식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했는데, 현재는 결식자를 위해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마다 50여명의 결식자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 중에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강요하지 않고, 부담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년 정도의 지속적인 이 사역을 통해 구청에서도 지역봉사를 인정할 만큼 본 교회는 인정받고 있다. 교회는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전도회별, 기관별로 돌아가며 섬기고 있다.

2. 장학금전달

장학금 전달의 시초는 이철원 집사가 크리스마스카드를 판매하여 생긴 수입금을 본 교회 불우한 학생을 돕는 것으로 부터 시작 되었다. 교회는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지역 내 학생들 중 학비가 없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다. 교회는 장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25년째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 이 장학금은 국내를 넘어 해외 필리핀에 있는 ‘랑카안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이 장학금 제도는 교회와 지역사회 중고등학교와의 협력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학교와 교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돕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학교가 평준화됨으로, 국내 신학생과 ‘랑카안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다.

3. 선물추천의 밤

일명 ‘성탄제일가족의 밤’이라는 행사는 성탄절 저녁에 진행된다. 이 행사는 성탄절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계획되었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방법이 없었다. 김복사는 고민 중에 당시 청년부가 선물을 추천해 나누는 모습을 착안해 교인전체가 나눌 수 있는 교회적인 행사로 만들었다.

‘상탄제일가족의 밤’은 30년 이상의 전통으로 내려왔으며 성도를 넘어 지역주민에게 까지 알려져 성탄절 저녁만큼은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어놓았다. 주일학교에서 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형편대로 선물을 기증한다. 작개는 치약 한 개에서 부터 텔레비전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생활용품과 다양한 용품들이 강대상 전체를 가득 채운다. 모든 사람에게 추천권을 나누어주어 당첨된 분에게 전달한다. 행사진행 중 먼저 당첨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종종있기에 이를 막기 위해 ‘복수추첨 제도⁶⁹⁾를 두어 모두가 끝까지 행사에 진행하도록 했다. 처음에 진행할 때는 본 의도를 몰라 오해도 있었지만, 이날 행사에서 주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음 해에 성도 스스로 더 많은 것을 기증하여 함께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교회가 이 행사를 단회적이 아닌, 오랜 전통으로 진행했기에 교회가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4. 건강(노인)대학⁷⁰⁾

고령화 시대에 교회가 자리 잡은 곳에도 노인들의 분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본 교회에서의 노인 대학은 2002년 5월부터 시작됐다. 1년에 2학기제로 12주 과정으로 열리고 있다. 교회가 속한 지역 내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에서, 교회는 이 사역을 통해 실버세대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돌봄을 감당하고 있다. 학기 중 한글학과, 음악학과 건강체조학과, 공예·미술학과, 영어학과, 생활치유학과, 컴퓨터학과, 무용학과 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대학 학기 중에는 찾아오는 노인들을 위해 계속적인 상담으로 도움을 주어, 노인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정보와 유익을 주고 있다. 본 지역은 노인복지에 대해 빈약한 실정에 건강대학은 지역 노인들이 함께 모여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어울리는 장이되고 있다.

5. 아나바다⁷¹⁾ 가게

아나바다운동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본 교회는 초창기에 여전

69) 당첨된 번호로 다시 한번 더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추첨 시에는 제일 좋은 상품을 경품으로 마지막에 추천한다.

70) 초기에 명칭을 ‘주사랑 심김회’로 출발했다.

71)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쓴다’는 뜻으로 많은 곳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도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장터를 열어 왔었다. 지역주민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이 바자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바자회는 1년에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교회조직 안에 복지부가 설립되어지고 ‘아나바다가게’를 교회 내에 두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이웃에게 전달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필요자와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교회는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에게 근접절약함을 통해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6. 제일선교원

2012년 설립되어 5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선교원’이라는 이름은 지역주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본 선교원은 각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제정을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교회는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고, 지역아이들에게 건강한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려고 ‘선교원’을 세웠다. 현재 많은 교회의 선교원은 점차 사라지고,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린이집을 수입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제일선교원은 교회의 지원으로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좋은나무성품학교’로 인정받아 인성 교육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적인 성품을 심어주고 있다.

7. 의료지원

교회가 부흥함을 통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사들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울산대학교병원과 결연하여 병원내 호스피스봉사단을 지원했다. 교회는 의사들의 날란트를 매주 교회 내 성도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상담을 통해 의료정보를 제공 해주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의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정기적인 활동으로 농어촌지역과 필리핀지역에 의료선교팀을 구성하여 의료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 4 절 지역사회복음화에 대한 방어진제일교회 성도들의 의식에 관한 조사⁷²⁾

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조사했다. 설문지는 35문항으로 조사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방어진제일교회에 대한 질문,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질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질문을 했다. 2015년 7월 12일에 실시했으며, 예배 후 각 전도회 모임과 부서 모임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258부의 설문이 이루어졌다. 이는 예배출석 1,500명 중 17.2퍼센트가 참여하고, 전체 제직 668명 중 231명인 34.5퍼센트가 설문조사에 답해 준 것이다. 남자 50명, 여자 208명이 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표 7> 설문에 응답한 성도 현황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구 분		응답자수	백분율(%)
연령	20대	12명	4.7	직분	교역자	6명	2.3
	30대	15명	5.9		항존직	147명	59.0
	40대	50명	19.4				
	50대	120명	46.5		서리집사	84명	32.6
	60대	24명	20.9				
	70대이상	3명	1.2		일반	21명	8.1
	무응답	4명	1.6				
	전체	258명			전체	258명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설문지에 답한 성도들의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장년과 노년층이 절대 다수로 8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교회가 위치한 동구(방어진)지역에 살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은 교회 안에서 사역교인들과 직분자 중심으로 설문이 조사되어졌다. 아쉬운 점은 젊은 대상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고, 일반성도들 또한 참석율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직분자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수에 83.71퍼센트가 10년 이상 출석한 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 통계는 직분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72) '부록2'를 참조.

<표 8> 출석하게 된 경로 및 동기

구 분	응답자	백분율(%)
부모님때 부터	36명	14.0
주일학교때 부터	15명	5.8
전도에 의해서	93명	36.0
자진출석	95명	36.8
기타	19명	7.3

<표 9> 가족의 신앙생활

구 분	응답자	백분율(%)
전 가족출석	167명	64.7
가족 2인이상 출석	64명	24.8
본인만 출석	19명	7.4
기타유형	8명	3.1

<표 10> 방어진제일교회 만족도

구분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응답자	119명	123명	15명	1명
백분율(%)	46.1	47.7	5.8	0.4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도와 자진출석에 의해 본 교회에 등록된 수가 72.8퍼센트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교회가 내적으로 교회의 기능과, 외적으로는 전도가 활발 진행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교회들 중에 각 부서가 세분화 되어지고, 시스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는 잘 없다. 대형교회의 장점이 자진등록을 소폭 높인 것으로 보인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89.5퍼센트가 가족중심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족단위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전가족이 교회 출석율이 높은 것 또한, 직분자 중심의 응답결과로 인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 보듯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회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8퍼센트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의 교회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교회 안의 행정과 복회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⁷³⁾ 그러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직분자인 것을 감안한다면 만족도 자체는 편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좀 더 정확한 만족도를 위해서는 폭 넓은 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구제와 사회봉사에 대한 견해

구분	동의	동의하지 않음	무응답
응답자수	218명	23명	17명
백분율(%)	84.5	8.9	6.6

<표 12> 본 교회가 시행하는 사회봉사 인지도

구분	모두 알고있다	조금알고 있다	모른다	무관심
응답자수	55명	164명	21명	18명
백분율(%)	21.3	63.6	8.1	7.0

<표 13> 본 교회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봉사 영향도

구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잘모름
제일선교원	72명	104명	53명	16명	1명	12명
아나바다	53명	92명	72명	12명	3명	26명
부료급식	112명	91명	34명	6명		15명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의 84.5퍼센트가 구제와 사회봉사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반응은 지역사회에 대해 본 교회가 계속적인 지역활동에 동참하고 지원해 왔기에 성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2>는 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

73) 교회만족도 세부내용으로 각 예배와 프로그램, 부서 활동, 시설을 조사해 보았다. '부록2'를 참조.

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이다. 84.9퍼센트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경험 유무가 177명(68.6%)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것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표 13>는 '현재 교회가 지역사회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을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선교원에 대한 만족도는 68.2퍼센트 나타났고, 아나바다에 대해서는 56.2퍼센트,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78.7퍼센트로 나타났다. 선교원과 무료급식은 매일 시행하는 지역사역으로 성도들에 활동하는 것이지만, 아나바다는 일일 사역이 아닌 주간 사역이기에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성도들이 보기에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4> 본 교회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정도

구 분	매우긍정	조금 긍정	조금 부정적	매우부정
응답자수	77명	150명	22명	9명
백분율(%)	29.8	58.1	8.5	3.5

<표 15> 본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에 대한 성도의 반응

구분	매우긍정	조금 긍정	조금 부정적	매우부정
응답자수	70명	132명	47명	9명
백분율(%)	23.1	51.1	18.2	3.5

<표 16> 본 교회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

구분	너무많다	적당하다	조금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응답자수	15명	139명	84명	20명
백분율(%)	5.8	53.9	32.6	7.8

<표 14>에서 보듯 현재 '본 교회와 지역사회 협력관계' 정도를 조사한 결과 87.9퍼센트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 본 교회 성도들도 인정할 만큼, 지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표 15>에서는 ‘지역협력관계를 위해 본 교회를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74.2퍼센트의 긍정적인 설문이 이루어졌다. <표 14>의 협력과 비교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보수적인 성향에 교인들에게는 교회건물을 개방한다는 것은, 교회라는 ‘거룩성’이 지역주민에 의해 구별되지 못해 에베드리는 장소가 세속화 되는 것을 우려해 나온 차이라고 본다.

<표 16>은 ‘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59.7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회가 해외선교와 국내선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 일정부분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7> 교회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 봉사에 대해

구분	매우 긍정	조금 긍정	조금 부정적	매우 부정
응답자수	75명	146명	24명	13명
백분율(%)	29.0	56.6	9.3	5.0

<표 18>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

구분	매우 긍정	조금 긍정	조금 부정적	매우 부정
응답자수	77명	132명	38명	11명
백분율(%)	30.0	51.1	14.7	4.3

<표 19>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

구분	매우 긍정	조금 긍정	조금 부정적	매우 부정
응답자수	105명	136명	16명	1명
백분율(%)	40.7	52.7	6.2	0.3

<표 17>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봉사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85.6퍼센트의 높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표 18>에서 ‘본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물음에 81.1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방

어진 지역 안에는 복지센터가 없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교인들도 복지센터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는 본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들과 사회봉사를 협력하는 것에 대해 93.4 퍼센트의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본 지역에는 울산기독교연합회에 가입된 교회가 19개⁷⁴⁾가 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업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20>과 같이 답해 주었다.

< 표 20 > 본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업에 대해

대 상	프로그램	응답자
어린이	유아원,유치원, 선교원 운영	135명
	방과 후 학교 및 어린이 공부방	80명
	입양, 위탁부모 결연 사업	31명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후원금 지원	33명
	아동 양육 강좌 개설	15명
	기타 : 예체능, 어린이 문화센터	2명
청소년	장학사업	58명
	독서실, 공부방 운영	61명
	청소년 선도	42명
	청소년 상담	88명
	소년 소녀 가장 지원	55명
	스포츠 활동 시설과 공간제공	77명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85명
주부	주부교양강좌	129명
	모자원	26명
	부녀 상담실	51명
	가정 폭력 임시 피난처	27명
	기타 : 부부상담	1명
노인	노인대학	111명
	경로잔치	24명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72명

74) <표 39>를 참조.

	노인 무료급식	49명
	간병 및 활동보조	50명
	기타 : 노인상담	1명
장애인	장애인 시설 운영	62명
	장애인 시설 방문 및 지원	63명
	장애인을 위한 봉사	83명
	기타	1명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	75명
	결식자를 위한 무료급식	88명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	53명
	무료진료활동	52명
	복지관 운영	26명
	동네 청소	28명
	지역봉사자를 위한 잔치	11명
	사랑의 김장나누기	41명
	사랑의 쌀독운영	21명
	기타 : 다문화가정 한글공부	1명

제 5 절 방어진제일교회 활성화 사역의 평가

지금까지 본 교회가 그 동안 진행한 사역들을 살펴보았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담될 만큼 다양한 지역사회 사역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교회 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교회의 지역사회는 오랜 전통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었다. 교회의 이런 사역은 교회의 부흥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교회는 본 성도들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의 편향성을 막을 수 있었다. 지역 사회 속에 교회는 종교의 건물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교회는 성도의 신앙 활동을 위한 현장을 열어줌으로 교회 중심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 활동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교회봉사와 사회봉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 교회봉사로만 집중되면 종교심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사회봉사로만 집중되면 신앙과 별개로 보게 된다. 본 교회는 교회와 지역사회를 통합함으로써

성도들의 이런 고민을 빗게 해 주었다. 이런 섬김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조직이 지역사회에 대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한 자원봉사 자원 또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섬김은 계속 개발되어야 하고, 전문화 되어야 한다. 교회자체의 지역사회 섬김은 교회의 지역사랑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전체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제도는 전문화 되고 있고, 체계화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 손을 닿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 섬김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지역 가까이에서 실제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 6 장

동구(방어진)지역 복음화를 위한 교회갱신

본 교회는 전통교회로 자리 잡아 왔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지금 시대의 흐름 앞에 전통을 발판 삼아 갱신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서 '갱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성장해왔던 모든 노력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이다. 본 교회는 현재까지 교회적인 모습이나 지역사회봉사적인 부분에 한국교회와 지역사회에 본이 되어왔다. 이 부분이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 1 절 문제제기

1. 고령화와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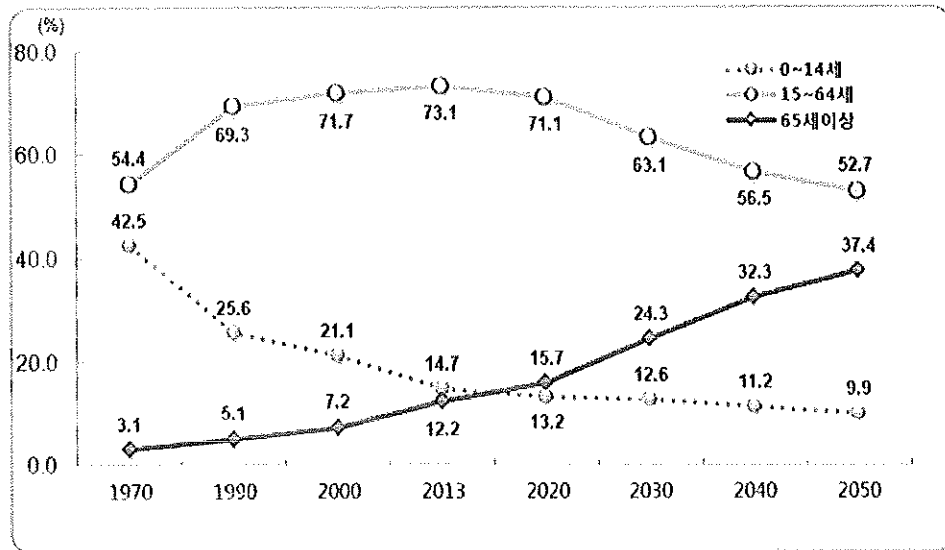
본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며 교회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로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질문은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퍼센트로 1970년 3.1퍼센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퍼센트, 2050년 37.4퍼센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0.9퍼센트에서 2030년 2.5퍼센트 2050년 7.7퍼센트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⁵⁾ 이런 흐름 속에 본교회가 속해 있는 울산은 전국 인구비율 제일 젊은 층이 살고있다.⁷⁶⁾

7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 4.

7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고령화 순위에서 1위-전남, 2위-전남, 3위-경북, 강원, 충남,

<그림 3> 연도별 초고령인구 비율 전망⁷⁷⁾



한국은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지만, 그 중에서 도시별 대비로 볼 때 울산시가 가장 높게 젊은 인구로 분포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본 교회의 성도 층은, 지역적으로는 젊은 도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성도구성은 고령화 되었다. 장년층 출석교인 1,500명 중 80퍼센트가 50대 이후의 성도로 구성되었고, 장년 대비 주일학교는 400명으로, 1/4수준에 불과하고, 청년은 평균출석이 50명에 불과하다.

2. 사역교인 배출의 한계

본 교회의 사역 교인 중 주된 층은 50대 이후의 연령으로 분포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사역에 또한,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10년 뒤, 은퇴세대가 되어지면, 교회의 재정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표 5> '교회적 분자 연수표' 에서 보았듯이 세가족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핵심구성원(안수집사/권사)으로 자리잡기까지 18년의 시간이 걸린다. 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사역교인 제도는 필요한 제도였지만, 현재 시대의 속도와 흐름에는 오히려 새로운 일꾼을 발굴하는데

충북, 제주, 경남,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대전, 16위-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서울: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2012), 46.

77) Ibid., 4.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지역원을 염두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끌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문화된 지역사회 봉사자 요구

사회는 전문화된 사람을 신뢰하고 자분을 구한다. 지역사회 섬김은 이제 본질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운동과 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역섬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에 교회는 전문화된 사역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역사회 섬김은 봉사활동을 넘어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함께 가야할 사역이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전문사역자를 배출해야 한다. 교회는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성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양성 시켜주어야 한다.

제 2 절 교회 안의 갱신

1. 주일 낮 예배의 변화

마르바 던(Marva, J. dawn)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채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⁷⁸⁾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 주변의 문화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⁷⁹⁾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예배는 지역사회의 문화까지도 바꾸는 변화의 힘이 시작되는 곳이다. 본 교회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 주일오전 예배가 한번 드러지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시간대와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선호하는 오늘날 예배 흐름 가운데 본 교회는

78) Marva, J. Dawn. *고귀한 시간낭비*, 김병국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24.

79) Marva, J.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Grand Rapids: Eerdmands, 1995), 57. 최승근, *예배* (서울: 두란노, 2015)에서 재인용.

한번의 예배(오전11시)에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다른 부서활동은 주일대예배 전후로 편성되며, 이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장소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1990년대 초 교회가 부흥하여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세대가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교회가 건축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점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집중할 수 있다. 모든 성도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사역의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

예배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는 문화와의 교류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예배는 회당예배와 유대교의 연례적인 축제, 그리고 매주 안식일의 모임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발전했다.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가 된 이후에는 로마 문화의 틀을 예배 안으로 가져오게 됐고, 중세로 넘어가면서 예배는 좀 더 시각적이고 극적인 성격을 띠게 됐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예배의 표현에 비잔틴 문화가 가미됐다. 이렇게 기독교의 예배는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⁸⁰⁾.

변화하는 문화에 따라, 예배에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할 때 생동감이 느껴지게 된다. 토마스 롱은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배가 변화를 시도해야 할 측면들에 대해 5가지를 제시했다⁸¹⁾.

- . 예배의 극적(drama)인 요소의 회복
- . 교회 음악의 폭넓은 사용
- . 예배의 활력으로서의 회중의 역할 증대
- . 예배 공간의 활용
- . 예배에서의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예배 속에 들어가 예배 속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감격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승근은 예배의 구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말

80) 주승중, “칼뱅의 예배관에 근거한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와 대안,” *목회와 신학* 통권274호 (2012. 4): 50.

81) Thomas G. Long “Something Old, Something New: Worship in a Time of Change” 41-45. “옛것과 새것 : 변화하는 시대속의 예배”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09)에서 재인용.

했다.

예배 속에서 복음은 설교 시간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전체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예배는 복음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좋은 흐름과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⁸²⁾

본 교회 예배형식은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정해진 순서로 진행 되어왔다.⁸³⁾ 예배 속에 사회자가 모든 순서를 소개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방해되고 있다. 오히려 예배의 순서는 예전의식에 충실해서 변화를 주기 힘들만큼 정형화 되었다. 물론 현재 장로교 예배순서 또한 대중적이며 설교 중심적인 예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오직 성령으로’ 만을 강조해 온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결국 성찬이 공예배에서 밀려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로마카톨릭이나 성공회는 주로 예전과 형식이 중심이 된 예배이며, 개신교는 교파사이에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성령의 직접 경험이 강조되었다.⁸⁴⁾

지역사회의 관점⁸⁵⁾에서 예배는 누구든지 이해되어야 하며, 정형화되기 보다는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은 예배에 감격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참여하는 예배로 갈 때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된다. 새가족이 본 교회에 와서 처음 종교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 낮 예배이다. 첫 관문인 이 예배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교회 공동체에 속해있는 성도

82) 최승근, *예배* (서울: 두란노, 2015), 124-125.

83) 현재 많은 한국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교회는 ‘개역한글판’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개역한글판’ 성경은 시중에서도 절판된 성경이다. 이런 점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원활한 성경을 공급이 힘들어졌다. 또, 성도들이 타교회에 예배드릴 경우 다른 성경을 사용하여 통일되지 못한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예배의 변화를 염두한다면 성경 교체가 시급하다. 현재 예배순서 중 바뀐 것이 있다면 광고시간에 시무장로가 구두로 광고한 부분이 영상으로 소개되고 있다.

84) 은준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예배* (서울: 연세대학교연신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989), 325.

85) 예배학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부분을 다루어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에 수용적인 관점으로 예배를 적용하고자 한다.

들을 보게 된다. 첫 모습을 통해 새가족의 신앙생활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본 교회예배는 앞으로 미래복음화 대상인 지역주민을 위해 현재 예배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주일오전 예배를 달리해서 전통예배와 갱신된 예배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형화된 예배를 천천히 변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예배의 변화는 그 동안 기존 예배에 적응되어왔던 보수적인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예배는 점진적이면서도 계획된 예배로 변화되어야 한다.

<표 21> 예배순서 제안 186)

내 용	담 당	비 고
찬 양	찬 양 팀	. 예배시작하기 5분전 사회자와 등단.
입 례 송		. 임재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예배선언	사회자	. 성경말씀으로 선언. . 선언이 끝나면 참회의 기도를 촉구
참회의 기도	전체	. 기도 중(오르간으로 반주) . 반주 후 죄 사함을 선포하는 성구인용기도. . 기도가 후, 사회자가 사도신경 '전능하사' 선창함
사도신경	전체	
찬송	사회자	. 찬송가
대표기도	시무장로	. 찬송가 가사 마지막 소절에 강대상 대기. . 3분이 넘어가지 않게 함.
성경봉독	사회자	. 스크린 자막과 함께 '교독'으로 읽음
성가찬양	성가대	. 성경봉독이 끝나면 소개 없이 바로 찬양함.
말씀선포	담임목사	
봉헌찬송	사회자	. 새가족카드 헌금과 함께 단상으로 전달.
환영	설교자	. 새가족소개
축복기도		. 새가족 / 헌금/ 축복기도
교회소식	방송실	. 영상광고로 전달

송영찬양		. '주님다시 오실 때까지'
축도	설교자	

<표 21> 예배 형식에서 강조한 것은 사회자가 다음순서를 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자는 전체가 예배형식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세워져 있다. 또 참고할 만한 것은 입례송이 찬송가가 아니라 임재찬양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임재찬양은 공동체가 목표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가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또, 송영찬양 역시 한주 동안 살아가야 할 신앙선언이 담긴 찬양이다.

<표 22> 예배의 제안 287)

내 용	담 당	조명	비 고
찬 양	찬 양 팀	ON	. 마지막찬양은 임재 찬양 . 정시에 성가대와 기도자 함께 등단 . 마지막찬양-임재찬양 . 통성기도 후 사도신경으로 연결 . 사도신경 후 대표기도자 기도연결
참회와 사도신경	전 체		. 통성기도로 참회기도, . 참회기도후 '사도신경'으로 연결
대표기도	시무장로		. '기도하겠습니다.' 멘트 빼고 진행
성가찬양	각부성가대		. 찬양 후 조명 OFF 될 때 (하단)
교회소식	방송실	OFF	. 영상광고.
말씀봉독	사회자		. 추가 광고 소개
헌 금 송	찬양팀		. 전체찬송/싱어/특별연주 등으로
스팟영상	방송실	OFF	. 스팟영상은 더 깊은 예배로 초대 . 영상나올 때 담임목사 강단대기
세가족 소개/헌금기도	담임목사	ON	. 세가족 소개 후 헌금기도 . 세가족을 위해 기도한 후 말씀
말 씬	담임목사		. 설교시 자막 방송실 미리 알려줌

86) 이 예배 형식은 '사랑의 교회' 예배형식을 초안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광은교회(www.gepc.kr)에서 8년 동안 시행한 예배형식이다.

		. 설교후 찬양미리 알려 줌
찬양	담임목사	. 말씀과 연결하여 찬양 . 악기팀 설교마지막 부분부터 멜로디 연주
축 도		. 합심기도 할 때 성가대 등단.

<표 21>의 예배형식을 진행하다보니 말씀과 광고로 분리되어 집중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표 22>로 예배형식에 변화를 주었다. <표 22>의 예배의 특징은 광고영상과 조명도 예배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또, 예배 자체에 찬양의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점이다. 타 교회의 예배형식을 보면 찬양과 본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 기존예배에서는 찬양 후에 예배를 들어가지만, <표 22>은 찬양과 예배가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이기에 찬양자체가 입례송이 되어진다. 교회소식과 헌금을 말씀 전으로 옮겨 후반부에서 말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였다. 설교 후에는 설교말씀과 관련된 찬양⁸⁸⁾을 성도와 함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런 흐름은 예배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 있으며, 예배 후에도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자유롭게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다.

2. 관리하는 교인에서 사역하는 교인으로 양성

작은 교회에서는 조직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지 않지만 대형교회 일수록 조직관리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 동안 '교구권사제도'를 통해, 본 교회는 전체 성도들을 관리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어 왔다. 교구권사들은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 성도들을 관리하고 상담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교회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평신도를 교구사역으로 동참시켜 이끌어 온 점도 한국교회에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구권사들은 조직관리와 심방행정을 돕는 자로만 있었기에 제한적인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다. 또, 여성 평신도권사이기에 남성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점도 있다. 그 동안 사역을 도와왔던 교구권사는 교회조직제도를 통해 볼 때 평균 50대 후반의 권사들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것

87) 이 예배 형식은 광은교회에서 2년 동안 임상을 해본 순서이고, 현재 정착되어 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88) 이 찬양은 늘 설교주제에 맞게 늘 바뀌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부르거나, 후렴을 반복해서 불러 임제기운대로 초대한다. 이 부분에서 설교자가 직접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유입되는 성도들의 계층을 생각할 때 다양한 연령의 교구권사가 필요하고, 남성교구를 위한 사역교인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 임직제도 간소화

초대 교회의 성장은 성령의 힘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 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했다.⁸⁹⁾ 본 교회의 임직제도는 지금까지 교회의 큰 버팀목이 되어왔다. 현재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전도대상은 젊은세대들이다. 교회는 지역주민들에 비해 고령화 되었다.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 가졌지만 역사와 함께 자꾸 과거를 지향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고령화 되어진 임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지면, 보수적인 성향과 그들 중심의 행정을 하게 된다. 또, 현재 임직자 선출방식은 젊은 일꾼을 양성되기에는 큰 벽과 같다. 임직을 받는 조건도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자격을 갖추기까지 필요한 10년 이상의 시간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흐름에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선정기준이 공평해도 성도의 수가 너무 많아 후보자를 잘 모르기에 좋은 임직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임직자 선출은 후보 각 개인의 앎보다 그 동안 눈에 보아왔던 이미지로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 속에 공정한 선출방식이 되기는 어렵다.

<표 23> 각 장로교단 임직자 자격과 선출방식⁹⁰⁾

교 단	장 로	안수집사	권 사
예장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상 - 무흠 입교인 7년 - 상당한식견과 통솔력 -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 후 공동의회2/3이상 (투표제한 3차까지) - 5개월간 교육 후 노회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흠 입교인 5년 - 30세 이상 남자 -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 1/2특표 - 피택후 3개월 당회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흠 입교인 5년이상 - 30세 이상 여자 -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 수 1/2특표 - 피택후 3개월 당회의 교육
예장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이상 남자 - 무흠 입교인 5년 -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 입교인 25명에 1인 정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적 자격만 규정 - 공동의회 투표수 2/3특표 (단, 당회가 후보 추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45세이상된 입교인 여자 - 공동의회 투표수 2/3특표 (단, 당회가 후보추천가능) - 안수없는 종신직원(만70세)

89)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교회 공동의회 규칙 의기 공동의회 투표수 2/3이상 (단 당회가 후보추천 가능) - 6개월간 교육 후 노회고시 		
고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이상(60세 이하남자) - 무흠 입교인 7년 -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 입교인 25명에 1인 정원수 -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 투표수 2/3이상 - 6개월 간 교육 후 노회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 입교인으로 무흠 5년 - 당회의결의로 공동의회 - 투표 수2/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세 이상65세 이하의 여자 - 입교인으로 무흠 5년 -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 투표 수2/3이상
백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상(70세 이하) - 무흠 입교인 5년 - 당회결의,노회허락,당회장 추천, 당회원 과반수이상동의 - 공동의회 2/3이상 - 세례교인 30명에 1인 - 당회지도 6개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이상 - 입교인으로 무흠 5년 - 당회장추천, 당회원 과반수 이상동의 - 공동의회 2/3이상 - 당회지도 6개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세 이상 - 서리집사 5년이상 - 당회지도 6개월교육

<표 23>은 각 장로교단이 임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표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출조건은 무흠입교인 5년 이상이라는 점이다. 대상자들은 당회의 검증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세워진다. 또, 선정 기준만을 통해 교회 내에 대상자를 찾고, 지원자를 선별한 후에 담임목사와 당회의 추천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본 교회는 전략적으로 40대 초반의 성도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 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교구에서 추천하고 당회에서 심의를 거쳐 후보로 선정한다. 이 후보들을 공동의회 2/3의 표결로 부치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하는 것으로 제안한다.⁹⁰⁾ 보통 자신이 원하는 후보의 2/3가 찬성표를 받아야 당선되지만, 반대로 대상자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반대사유가 2/3이 있을 때 후보에서 빼는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표수로만 직분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당회 검증에 통과된 성도에 한해 동의를 묻고 세우는 방식이다. 현재 많은 한국교회는 직분자 선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검증받은 젊은 세대들이 있다. 이들이 직분자

90) 황성철, “한국 교회 임직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목회와 신학* 통권245호 (2009, 11): 46. ‘백석교단’ 내용은 2013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91) 이 제도는 ‘안산동산교회(김인중)’ 임직자 선출방식이다. 홍순석, “임직자 선출,” *목회와 신학* 통권245호 (2009, 11): 53.

로 세워지면 교회안의 젊은 활기가 일어나고, 노령화되는 교회 조직 속에 다음세대를 이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젊은 재직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교구권사 순환 및 재교육

교회가 지역사회의 주민을 복음화하기 위해 나가려면 교회 안에 리더는 준비되고, 시대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 리더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복양, 훈련,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은 비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시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복양을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⁹²⁾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평신도들을 고정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관계로 세워 나가는 개념이다. 성도들은 관계로 교회와 연합하여 섬기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결정이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 평신도들이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⁹³⁾

존 맥스웰은 리더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일하든지 환경 변화의 주도자로 보았다. 리더는 '온도계'이기보다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되어야 함을 말했다. 두 기구 모두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이지만, 이 둘의 기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온도계'는 수동적이다. 온도계는 위치하고 있는 주위 환경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지만,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반면 '자동온도조절장치'는 능동적이다. 이 기구는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알아낸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변화를 주도 한다.⁹⁴⁾ 리더는 교회 안과 구역 안에서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역할을 다 할 때 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리더십의 성경적 모델은 두 가지 개념에 기초한다. '좋은 지도함으로써 섬기고, 지도자는 섬김으로써 지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예수님은 지도함으로써 섬김의 원리를 입증해 보이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완전히 모든 것을 드러낸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사람들

92)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s, *소그룹을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102.

93) Paul, Stevens.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서울: 미션월드, 2007), 210.

94) John, C. Maxwell. *인재경영의 법칙*, 임윤택 역 (서울: 비전과 리더십, 2013), 40-41.

이 때로는 주님을 오해하거나, 비판하고 조롱하며, 끝내는 그를 죽이기에 이르렀다. 종으로 당할 희생들을 생각해 볼 때 불안해 지지만, 위협을 감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⁹⁵⁾

16명의 시무권사는 심방전도사가 할 사역을 대신하며 ‘교구권사’로 김목사의 30년 목회를 도와왔다. 이들은 교회 안의 리더십의 모델이 되었고, 지금의 성장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존 맥스웰이 말한 것과 같이 교구권사는 그 동안 ‘온도계’ 역할을 해 왔다. 성도들과 지역사회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개인화된 대상을 지금처럼 ‘온도계’ 역할로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교구권사제도는 심방을 돕는 행정적인 일과 성도들의 상담을 들어주는 관리적인 차원으로 사역해 왔다. 이제 교구권사는 ‘온도계’에서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관리를 넘어 ‘사역하는 교구권사’로 양성해야 한다.

<표 24> 영성모델의 8가지 요소와 핵심취지⁹⁶⁾

요 소	핵 심 취 지
중심성 (그리스도의 중심 삶)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경험과 사역적인 경험을 평가한다.
내면성 (내면적 삶의 개발)	영적인 수직적 측면(침묵, 은둔, 금식, 기도의 경건생활과 훈련)인 내면적 삶의 개발을 살핀다.
외향성 (내면화된 삶의 실천)	내면적 삶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영성의 수평적 측면으로 세상에서 상호 작용하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성령의 민감성 (매일성령에 순종함)	성령의 영역을 다루며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 본질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신자의 영적 민감성을 평가한다. 중심성, 내면성, 그리고 외향성과 관련된 삶의 통합적인 요소이다.
독특성 (은사에 따른 개발)	성령으로 각 신자에게 알 맞는 영성 모델이 이루어진다. 공통적 요소가 존재하지만 다른 점도 많다. 새신자의 은사, 인성, 성별, 영적 성장 과정은 자신의 영성 모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 사람의 영성 모델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다르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호의존함)	외향성, 내면성, 그리고 성령의 민감성 요소가 결합되어 크리스천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촉진한다.
열매맺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됴됨이와 성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룬 각 개인의 성취를 내면적 열매(성령-성령의 열매)와 외면적 열매(외적열매-은사의 결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취)로 평가한다.

95) 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5), 52.

계발 (지속적 성장과 평생 계발)	평생에 걸쳐 각 영성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는 통합적 영성 요소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있어서 각 요소의 발전을 가늠해 보이는 평가, 확증,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	--

<표 24>는 교구권사들에게 지속적인 소양교육의 틀을 사용해서 훈련시킨다면 사역자로서 양성될 수 있다고 본다. 정기적인 세미나와 소양교육(성경인도법, 큐터, 상담법, 행정등)을 1년에(12주) 2회 교육을 시킨다. 3년 임기제와 1년 안식년을 두어 시무권사 안에서 모든 권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여 교구권사를 하지 않을 때에도 교구권사사역 경험자로 교구 안의 인적자원으로 역할을 한다.

교구권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셀(구역)에서 적용하는 슈퍼셀리더⁹⁷⁾로 양성함이 요청된다. 교구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교구교역자의 추천보다, 구역을 배가시켜 구역원을 양육해 본 경험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3. 구역⁹⁸⁾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도 공동의 삶을 살며 열정적인 삶을 가꾸도록 창조하셨다. 사람들 간의 이런 상호의존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의 일부이다.⁹⁹⁾ 현재 구역은 예배 공동체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회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교회이기에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구역모임도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역은 이제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해 예배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

가. 예배중심에서 나눔 중심

96) J, Robert Clinton, Richard, W. Clinton. *멘토링 매뉴얼*. 이영규 역 (서울: 디모데, 2013), 117.

97) 슈퍼셀리더란? 풍성한교회(김성곤)에서 실시하는 두날개양육프로세스에 있어 행복모임을 열어 셀을 3개이상의 셀을 만든 사람을 가리켜 이 명칭을 붙인다. 슈퍼셀리더는 교회에서 주목한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세워진다고 할 수 있다. Online: http://www.two.or.kr/?page_id=5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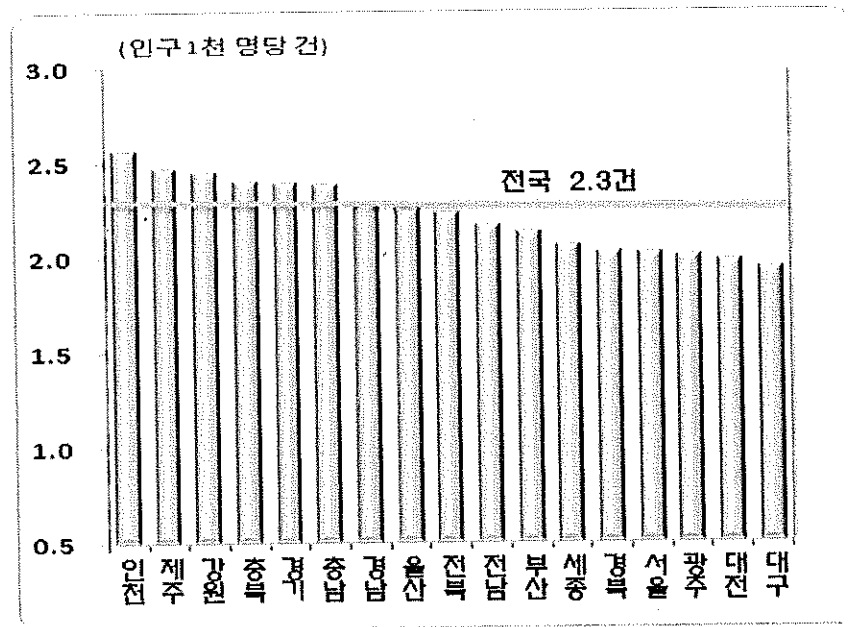
98) 본 교회는 81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99)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관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53.

울산지역에서의 구역모임은 예비공동체의 모임보다 생활과 삶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다. 구역은 지역사회 속에 있기에 지역에서 만나는 대상자가 곧 미래의 구역원이 되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조사한 이혼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2,590건, 2013년에는 2,578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 수치에 해당된다.¹⁰⁰⁾ 전국통계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이혼은 전국평균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만족과 이혼은 별개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사회 속에 모여지는 구역모임은 지역에 속한 일반가정을 사역 대상으로 봐야 한다.

<그림 4> 시도별 이혼율¹⁰¹⁾



성도들만의 모임을 넘어, 이혼가정,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및 다양한 삶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된 구역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을 통해 지역 속에 있는 불신자와 관계를 맺고, 이 관계가 구역모임 나눔으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성격도 갖추어야 한다. 지역사회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만나 삶을 나누어 공동의 목표가 공감될 때, 구역모임은 지역사회에 가정을 지키고, 가정문제를 조기

100) 통계청, 2013년 혼인·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2014), 21.

101) Ibid., 21.

에 예방하여 도움을 주는 구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사역화 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 가정교회 목장으로 전환

초대교회는 오늘날 처럼 집회를 할 때, 모이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가정 집이었다. 가정에서 사도들이 가르쳤고, 기도했으며,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으며(행12:12), 사도들이 가르친 가정집이었다(행2:42,20:20). 바울은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면서 교회적 성격을 부여했고(고전16:15), 브리사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문안하라고 하면서, 가정이 곧 교회임을 말했다(롬16:3-5). 빌레몬서 2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에서도 빌레몬 가정 교회를 찾을 수 있다.¹⁰²⁾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란 용어는 그 기초가 그리스도 교회와의 관계 안에 있다.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 식구로 여겨진다.¹⁰³⁾ 교회란 가정 형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도적이기 보다 연약적이다.¹⁰⁴⁾

권분상은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교회의 모델을 제시했다. 유교적 가족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굳어진 한국인의 정신을 공동체교회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이것을 한국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유교적 가족주의에 적용했다. 그 이유는 공동체 교회의 키워드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¹⁰⁵⁾ 이런 점에서 가정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적인 친밀한 가족 정신 아래에서 개방성을 지향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말한다.

일반 소그룹과 가정교회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가정교회는 분가나 재생산에 역점을 두지만, 교회 내 일반 소그룹은 각기 그룹에 맞는 목적을 지향한다. 둘째, 가정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혹은 깊은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지만, 일반 소그룹들은 제각기 그룹의 발전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쓴다. 셋째, 교회 내 소그룹들은 가정교회의 기능 중 한 부분을 감당한다.¹⁰⁶⁾

102) Ibid., 261.

103) 서창원, *교회 예수의 깨어있는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1999), 48.

104)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5), 80.

105) 권분상, *부흥 이개인 1907* (경기도: 브니엘, 2006), 258-59.

106)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104.

한국인이면 쉽게 누구나 가족적 연대로 이웃 관계를 유지하려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순기능으로 나타나야 한다. 권문상은 가정교회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가족교회는 가정이라는 공간을 초월한다. 둘째, '가정'은 장소적이고 혈연적인 개념이 중시되는 반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혈연적이고 지연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셋째, 지도자가 없는 완전한 평등 구조의 가정교회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다.¹⁰⁷⁾

최영기는 가정교회를 한국최초로 교회에 적용했다. 그는 가정교회를 하나의 교회 자체로 보았다. 이 가정교회 속에서 친교를 갖게 했고 내적치유를 추구했다. 그가 정의하는 가정교회는 다음과 같다.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같다.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다. 구성원들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가정 교회를 선택할 수가 있다. 주된 활동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 대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역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끌고루 다하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회이다.¹⁰⁸⁾

소그룹으로 형성된 가정교회는 단지 기독교 안에 하나의 공동체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좁게는 교회 안에 가정공동체로 존재하지만, 이 가정공동체가 지역 안으로 들어가 지역 속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이 진행될 때는 사회전반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는 교인으로서 갖게 되는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인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소그룹에서 서로의 분재를 나누는 것으로 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¹⁰⁹⁾ 현대사회는 개인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계 속에 형성되어지는 사람과의 나눔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 목마름을 가정소그룹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정제영은 이 소그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았다.

107) Ibid., 271-74.

10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71.

109) 정제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88.

우리가 소그룹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그룹이 공동체의 특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거대 교회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구성원들을 작은 집단으로 묶어 친밀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며 공동체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은 공동의 신념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집합 의식과 결속력을 보인다. 이러한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특성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위자화된 개인들이 운동 경기를 보듯이 모여 있는 현대교회에서, 공공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관계를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¹¹⁰⁾

가정교회 소그룹은 신앙을 기초로 하는 공동의 결속감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헌신하며 상호관계를 통한 공동체를 이룬다. 개개인들이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이기적인 개인의 성향은 공동체 안에서 변형되며 교정된다. 따라서 교회의 동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성에 있으며 성도와의 서로의 인격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며, 좀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¹¹¹⁾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홀로 사는 인간 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구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구역은 지역사회와 연결되었다. 이런 가정교회로 모인 소그룹의 부흥은 곧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그룹 모임은 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모여진 공동체이다. 이런 점에서 소그룹은 개인과 생활기반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제 3 절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참여

1. 지역사회 적극적 홍보

본 교회는 그 동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¹¹²⁾ 동구(방어진)내 에서 단일 교회로서 장기적인 불적, 인적자원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사역 할 수 있는 교회

110)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9-10.

111) Ibid., 46.

112) 5장 3절에서 방어진제일교회의 지역선교 사역을 1.무료급식운영, 2.장학금전달, 3.선물추첨의 밤, 4.건강(노인)대학, 5.아나바다 가게, 6.제일선교원, 7.의료선교를 소개했다.

는 본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교회는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단회적인 노력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히 구제와 지역섬김을 해왔다. 이는 교회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지역이 무관심 할 수 있다. 또, 지역사역 내에 홍보가 되지 않아 알지 못해 찾아오지 못한 경우도 많다. 그 동안 본 교회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적극적으로 사역을 홍보 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본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구청과 동사무소 및 공공기관에 알리고,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을 제작하여 홍보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보는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2. 전문화된 봉사자 양성

교회봉사는 개인 신앙의 표현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봉사자들의 자세와 모습들이 미래의 성도가 될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과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봉사자들에게 지역봉사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일깨워줌을 통해 현재 시행하는 사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참관하여 현재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도 모색해 볼 만 하다.

제 4 절 지역교회로서의 전문화된 사역 전략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교회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도로서 봉사하는 것을 지역주민 보다 우월한 짓으로 여기거나, 봉사를 주는 관계로 여겨 주민에게 접근한다면 지역 섬김의 의도가 변질될 수 있다. 또, 봉사를

순수한 지역 섬김으로 여기지 않고, 전도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무관심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¹¹³⁾

교회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회복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전문성 없이도 가능한 급식, 목욕 등의 의식 위주의 1차적 욕구 충족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사업이 아닌, 어떤 단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1차적 욕구 해결에 기반을 둔 복지사업은 교회 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되고, 변질되어 순수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닌, 교세 확장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¹¹⁴⁾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해야 한다. 교회는 항상 새롭게 참여해야 하고, 항상 역사적 변화와 인간생활의 변모에 적응해야 하며, 항상 개혁과 쇄신과 재고를 해야 한다. 교회가 고민해야 할 일은 현재의 실태에서의 출발이 되어야 하며, 과거의 근원에서 미래의 교회를 추구해야 한다.¹¹⁵⁾ 교회는 신앙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공동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분리될 수 없듯이 지역사회의 역할 역시 분리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교회 공간은 교회 내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표 3>동구지역 복지시설 현황을 기초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본 교회의 사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정상담센터¹¹⁶⁾ 운영

우리나라에 상담소는 그 형태가 다양하다. 크게 공공상담기관과 사설 상담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울산 동구 지역 내 가정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은 빈약한 상태이다. 특히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소는 동구 내 1개소 밖에 없는 실정이다.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인적자원이 요청된다. 또, 상담가가 내담자

113) “내 지역을 내 교회같이 사랑하라,” 뉴스앤조이, 2010년 5월17일자.

114) 임성규, “교회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 목회와 신학 통권312호 (2015. 6): 43.

115)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29.

116)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회는 세종양교회, 오륜교회, 지구촌교회, 광림교회 등이 있다.

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상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운영 책임자의 소명과 임상 상담가로서의 전문적인 능력(자격증, 학위), 상담센터 경력이 중시된다. 또, 상담은 너무도 넓고 광범위하기에 한 가지 상담이론과 그것을 적용한 기술을 터득한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상담센터 운영을 하려면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서 세분화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¹¹⁷⁾ 이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모범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통해 위탁형식으로 사역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상담센터를 개설하려면 폭넓은 지역사회 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내담자가 주 대상인가 하는 점을 조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담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유형과 잘 맞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현지역사회에 실행되어야 할 것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다.

가. 혼전교육

성적윤리는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는 무분별한 성적

117) 상담은 크게 6개로 아동상담, 청소년상담, 청년상담, 중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신앙상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단일교회로 최고의 상담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세중앙교회'이다. 이 교회는 일반 상담과 상담연구원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협력하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상담소를 세워 성공한 모델이 되고 있다. 초기 상담소를 세울 때 세중앙교회의 목회계획에서 진행되었으며 '연세대학교상담요청지원센터'의 교수들과 슈퍼바이저들이 협력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세운 좋은 모델이다. 50여명의 전문상담사와 28개의 상담공간을 갖추고 있고 일주일 면접상담횟수가 400여건, 20여개의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세중앙상담센터'에서는 인터넷상담, 전화상담, 면접상담, 아동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부모교육, 사회성 증진훈련, 아동심리검사, 청소년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성인상담; 심리검사; 아동심리, 청소년심리, 성인심리등 방이적 상담을 넘어 예방적 상담까지 복합적인 상담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구촌교회'는 1.상담사역, 2.가정사역, 3.회복사역 3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사역하고 있다. 1.상담사역에서는 면접상담, 전화상담, 부스상담, 법류, 세무, 재무상담, 진로 및 적성상담, 심리상담, 성경적치유상담세미나, 열린부모세미나, 우리아이리더스쿨, 상담이해와 활용, 발달심리와 상담, 가족치료와 상담, 자기대면, 2.가정사역에서는 새가정훈련학교, 사랑의 순례, 결혼예배학교, 신혼부부교실, 성서적부모교실, 창조적대화교실, 라이프코칭교실, 성서적 재정교실, 대디캠프, 부부행복플러스, 3.회복사역: 회복축제예배, 회복축제기초·심화·사역과정, 특성별 회복소그룹으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구촌교회'는 신앙적 사역을 상담사역에 집목하게 있다. '오류교회'는 개인상담, 부부상담, 아동·청소년상담, 치유상담, 법률상담, 세무상담, 의료상담으로 운영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다. '광림교회'는 '오류교회'와 비슷한 형태의 상담안내를 하고 있다.

타락과 개인주의의 그릇된 해석을 통해 문란한 성적 문화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가정 형성과 결혼생활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유로만 결혼했다가 결혼생활의 현실 앞에 쉽게 좌절하고 이혼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생활이 무엇인지 숙지하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사전적 지식이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많다. 또, 혼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교회조차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결혼 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갈등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이 발생한다. 교회는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부부별로 <표 25>와 같이 혼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주 교육을 하는 이유는 4주 이상의 교육이 될 때는 수료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4주 교육 중 책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5> 혼전4주 교육 커리큘럼

주	주 제	내 용	독 서
1주	결혼이란?	성경적 가정관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열가지 방법(요단)
2주	결혼을 통한 역할분담	재정, 부모섭김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해냄)
3주	부부대화법	대화실습(상황극)	진정한 성(IVP)
4주	언약과 다짐	구체적인 언약	가족계획, 재정분배, 서약서.

나. 출산예비학교¹¹⁸⁾

출산예비학교는 문화센터와 보건소에서 열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본 지역 안에는 이런 복지적인 혜택을 누리기엔 지역적인 한계가 있다. 일반출산학교는 지역중심

118) '온누리교회 출산사역팀'은 이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퇴근하는 남편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한다. 이 사역팀은 일반 출산학교 처럼 임신부체조 등, 호흡법등으로 해왔지만, 시행착오 끝에 부모가 될 부부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성경적 부모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말씀과 기도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아니라 센터중심으로 모여져 출산이 진행되어 지속적인 관리와 연결이 어렵다. 이 점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출산예비학교에서는 임신과 함께 출산까지 10개월 동안 산모가 느끼는 신체적인 반응과 태아에 대한 정보를 12주 과정으로 주1회 교육하는 것이다. 최소5명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 출산예비학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내 출산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동기애를 갖게하는 것이다. 교회는 출산 후에도 아이의 생일과, 산모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출산예비학교에서 함께했던 시간과 정보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

<표 26> 임신부 양육 흐름도¹¹⁹⁾

산모	임신 통보	임신 중				출산	출산 후 아기관리		출산 100일
		공동체별 베이비 샤워	출산 기도모임	내 학기 출산예비 학교	인터넷 상담, 자료실 운용		출산축하 카드 발송	출산 기도모임 홈페이지 이용	
출산팀 역할	컴퓨터에 입력								100일 축하카드 발송

다. 아기학교

주일학교 부흥에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주일학교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청년대학부를 살리려면 고등부를 살리면 된다. 고등부를 살리려면 중등부를 살리면 되고, 중등부를 살리려면 어린이 부서를 살리면 된다. 어린이 부서를 살리려면 유치부를 살리면 된다¹²⁰⁾ 교회학교 부흥은 어느 한 부서의 부흥으로만 되지 않는다. 모든 교육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이 흐름은 장년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아기학교’가 주일학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기학교는 20개월 이상~48개월의 아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학교는 아기의 첫 사회생활을 엄마가 도우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활동하는 교회학교 유아교육 주간 프로그램이다. 이 학교에서는 아기가 중심이 되어, 아기의

119) 온누리교회, “출산사역팀 사역”. Online: www.onnuri.org/wp-content/uploads/2013/08/출산사역팀-사역.pdf

120) 최윤식, 최현식, 201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212.

눈높이에 맞추어진 신체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언어, 인지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처음 사회활동에서 아기는 서투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엄마는 ‘아기학교’를 통해 부모역할을 보다 잘 하도록 하고, 엄마는 아기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배우게 된다. ‘아기학교’를 하게 되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개인차를 이해하며 엄마가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준다.

12주차 상반기 하반기로 두 차례 진행하며,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은 다르게 진행된다. 아기들은 최소 1년이 지나면 어린이집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12주 프로그램이 계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¹²¹⁾ 엄마들은 아기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지만 교육하는 곳이 없는 지역실정에 이 프로그램은 아기와 엄마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아래 <표 27>을 보면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이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아기학교 상하반기 12주 전체 프로그램¹²²⁾

상 반 기			
주차	설 교	반별활동	전체활동
1	개강예배	피터팬 모자만들기	케익
2	호산나(요12:12-19)	미니 올림픽	
3	기도하시는 예수님(요17:1-26)	물감찍기	요술 풍선 하트모자 만들기
4	부활하신 예수님(요20:1-10)	pet병으로 만들기 “돌부딪”	신체표현
5	오병이어(요6:1-15)	인형극	
6	가나의 혼인잔치(요2:1-12)	과자 목걸이·팔찌	결혼식
7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막10:46-52)	지갑만들기	시장놀이
8	야외예배	“어린이 대공원”	
9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요11:28-37)	빠에로 모빌만들기	동화구연

121) 일년에 2학기제 커리큘럼으로 ‘모세이야기’, ‘요셉이야기’로 활동할 수 있다.

122) 본 연구자는 속한 광은교회는 현재(2015년)까지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아기학교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한 번 개최 할 때마다 선착순60명을 받고 있으며 아기학교를 통해 교회 성도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10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 (요6:16-21)	신발만들기	바다건너기
11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요13:1-20)	세족식	과자꾸미기
12	종강예배	뷔페	
하 반 기			
주차	설 교	반 별 활 동	전 체 활 동
1	개강예배	왕관,뽕망치만들기	입학축하
2	하늘과 땅바다를 만드셨어요(창1:1-10)	앞치마 만들기	송편빚기
3	나무도 꽃도 예뻐요(창1:11-13)	꽃다발 만들기	보자기까꿍! 놀이
4	낮엔 일하고 밤엔 쉬라하셨어요(창1:14-19)	해, 달, 별 버리핀 만들기	아름다운 밤하늘 표현놀이
5	새와 짐승도 만드셨어요(창1:20-25)	인형극	
6	사람을 만드셨어요(창1:26-31)	나는 특별해요 (아이클레이점토놀이)	공굴리기놀이
7	아외예배	“자연생태박물관”	
8	네! 하나님(창12:1-9)	나팔만들기	음식만들기
9	싸우지 않아요(창13-13)	악기 만들기	악기놀이
10	기쁘게 맞이해요(창18:1-8)	간호사모자 반사경만들기	병원놀이
11	행복한 우리집(창21:1-7)	가족액자만들기	신체표현
12	종강예배	뷔페	

2. 장애인 예배

전국 장애 추정인구는 273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 인구는 만명당 559명 수준이다. 전체장애인 10중 4명이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로의 24.1퍼센트가 1인 가구이다. 특히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우울감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퍼센트가 된다고 한다.¹²³⁾ 본 지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교회가 미비한 실정이다. 장애인 예배는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그들 또한 지역 내에 있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장애인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시

123)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4월20일자 참조.

스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한 명당 최소 1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본 교회 시설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큰 어려움 없이 예배당까지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회적 배려가 필요하다.¹²⁴⁾

장애인사역은 기존 성도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아무리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을 구비한다 해도, 기존 성도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장애인 정착은 어렵다.

본 교회는 본당에서 드리는 통합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는 장애인과의 통합예배가 가능하지만, 교육부서에서 장애인부서는 없는 상태이다. 장애인사역은 교사에서 부터 차량운행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세심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장애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통합예배이다.

장애인사역은 교회의 기능에 있어 필수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 당위성은 교회론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역 내 그늘 속에 있는 장애인의 삶을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외국인근로자¹²⁵⁾

124) 3장에서 장애인사역을 소개하면서 구미상모교회를 예를 들었다. 이 외 대표적인 장애인을 돕는 목회로 정평이 나있는 교회는 ‘연수제일교회’, ‘염광교회’이다. ‘연수제일교회’는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제자훈련을 시행했다. 그 안에서 신앙적인 내용과 함께 “장애를 숨기고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당당히 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비장애인 성도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매월 1회씩 주일 찬양예배에서 장애인을 구제의 대상이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담임목사는 강조했다. 그렇게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예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한진, “장애인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 전략,” *목회와 신학* 통권235호 (2009. 1): 122.

125) ‘나섬교회’는 교회 설립초기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 사역이 확대되어 다문화가정 사역에 까지 진행하고 있다. 나섬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교회 속에 한 부서로 보기보다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교인으로 세워 주체자로 교회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ww.nasomchrch.com), ‘구리성광교회’는 지역공장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명절선물과 꾸준한 관계를 맺다가 발전이 되어 외국인들을 위해 의료사역까지 연결해 주고 있으며, 외국인 자체 성경공부팀을 교회직분자들이 팀장으로 운

본 교회는 해외선교를 분기별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재정과 헌신을 해 왔다. 그러나, 본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 들어온 외국인을 선교대상자로 활동하는 것은 미비한 실정에 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선교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인적, 물적 자원보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접근성에 있어서 더 쉽기 때문이다. 보통 선교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의 사회, 문화적 형편에 맞게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 날에 선교는 역으로, 우리 지역 속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¹²⁶⁾

동구(방어진)에는 유독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¹²⁷⁾ <표 2>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인구 및 세대수 현황’을 참조해 보면 동구지역 전체 외국인이 6,113명에서 방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2,398명으로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어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유럽과 러시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조선업에 전문기술사원으로 들어가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 본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단중심으로 중산층 계층과 소외계층으로 뚜렷하게 양분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교회가 찾아가지 않는 한 자기발로 교회로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이다. 현재 본 교회는 베트남과 중국어를 통역을 통해 예배를 돕고 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외국인을 예배의 관계를 넘어 교회의 사랑과 관심으로 제2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

영하여 심기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비자발급과 월급에 대해 부당함을 당할 때는 혼자 가기힘든 정부기관에 함께 가주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에게 큰 위안을 주게 된다고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나라에 해외선교팀이 찾아가 근로자가정 중심으로 선교하는 일까지 확대되고 있다. “구리성광교회 외국인 근로자 사역 모범” *기독신문*, 2007년4월2일자.

Online: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46856>

126) 노영상, “건강한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 *목회와 신학*, 통권286 (2013. 4): 84-85.

127) 2014년 동구내 외국인 인구가 남성2,105, 여성 493명, 전체 2,598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참조.

적 책무보다 교회성장에 힘써왔다. 그 결과 원하는 성장은 이루었지만,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는 상실하고 말았다.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한 교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 지역 내의 교회들이 함께 연대하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회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

방어진내에 19개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감리교회 4개, 성결교1개, 기하성개, 고신1개, 백석(본 교회)1개, 통합4개, 합동3개, 독립1개, 계신1개, 합동보수진리1개이다.¹²⁸⁾ 교회는 본의 아니게 경쟁구도로 있기에 지역 내에서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다. 교회가 한 지역 속에 있다는 것은 지역의 문제가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연대하여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협력을 통해 교회는 서로가 상생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소 운영을 위해 지역교회가 장소를 제공한다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 내 결식자 무료식사제공(이동식),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개방, 지역 내 축제에 지역교회가 연합된 교회로 참석하여 지역에 속한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는 것 등이 있다. 지역사회 교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방법은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결국 이런 지역 활동은 지역주민을 잠재적 교인들을 세워가는 일이 될 것이다.

5. 착한가게(로컬푸드)¹²⁹⁾ 운영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먹거리의 위기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과 소비자가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점차 상실하고, 거대기업의 하청업자 혹은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구조는 짧은 시간 생산을 하여 납품하기 위해 과다하게 농약을 살포하거나 질 낮은 재료

128)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독교전화번호부 참조.

129) 로컬푸드(Local food) 정의한다면 '지역농산물직거래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동거리를 줄여 영양 및 신선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거리가 아닌, 농장직영, 가까운 농장, 국내생산품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신시사상식* (서울: 박문각, 2013), 50. 기독교환경운동 연대(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에서는 '초록가게' 운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를 사용 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불신을 만들어 냈다.

로컬푸드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식품자체가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신뢰, 참여, 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농촌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 유입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 등 구조적 악순환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2013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타결'이 선언됨에 따라 식량 안보 문제에 있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각 나라와 계속되는 FTA체결로 국내 농촌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농촌 교회가 겪게 될 어려움도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때, 로컬푸드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첫째, 우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통해 거둔 수확물의 판매자로서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폐해진 농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근대화로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농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원산자와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대형 마트의 수동적 소비자에서 투명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몸에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유대를 통한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생산농가 방문하여 체험 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얻어 사회적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이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¹³⁰⁾

착한가게(로컬푸드) 운영을 민간기업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만하다. 지역주민은 좋은 먹거리를 원하고, 농어촌교회성도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를 못 구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중간 연결이 된다면, 농어촌교회를 통해 본 교회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교단별로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연계를 통해 착한 직거래장치, 협동조합, 자매결연 등 다양한 농촌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¹³¹⁾

130) 김철규,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 제12집 1호(2011년): 116.

131) 본 논문 제3장 '지역복음화'에 소개된 농촌(김제들녘교회)과 도시연결(향린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6. 문화센터 건립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며 또한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현상적인 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실천의 윤리적 당위성을 의미한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진, 사회의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제도 안에 있다. 윤리적으로 보면 교회는 사회에 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¹³²⁾

교회는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교류가 있으며 문화와 예술의 공간이 되고, 지역사회의 현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광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사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교회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본 교회 건물은 주일이면 각 기관과 부서가 활동하기 때문에 모든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에는 선교원과 무료급식을 제외한 지역사회 활동은 없다. 현재 교회 시설로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교회건물 한 동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기에 활용성과 접근성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지역주민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계층을 고려해 볼 때, 교회 건물 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연다고 해도 ‘교회’라는 명칭 사용은 장기적인 사역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제일문화센터’(가칭)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회 문화센터는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화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복지사업과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적 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 교회문화센터는 문화 서비스 욕구를 갖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보호서비스’, ‘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132) 김성철, “지역사회 복지시설로서의 교회 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목회와 신학*, 통권313호 (2015. 7): 64.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치료 등 종합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³³⁾

‘제일문화센터’는 지역사회를 향한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열린 자세로 있게 되고, 지역사회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 장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회는 ‘문화센터’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다. 문제는 재정을 고려할 때 언제 건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25년은 본교회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금부터 ‘위원회’를 조직하여 준비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제 5 절 지역교회로서의 활성화 과제

1. 다음세대(교회학교) 과제

미국의 교회 사역 전문 연구소인 바나연구소(Bama Research Group)는 ‘어린이 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3명 중 2명은 13세가 되도록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거나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는 의미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10명

133) 김성철은 문화센터 운영의 원칙을 8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역성의 원칙’ : 교회 문화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둘째, ‘전문성의 원칙’ : 교회문화센터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 프로그램과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셋째, ‘책임성의 원칙’ : 교회 문화센터의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 넷째, ‘자율성의 원칙’ : 교회 문화센터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문화센터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 다섯째, ‘통합성의 원칙’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 기관과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 여섯째, ‘자원 활용의 원칙’ : 교회문화센터는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 일곱째, ‘중립성의 원칙’ : 교회문화센터는 정치 활동, 영리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 여덟째, ‘투명성의 원칙’ : 교회문화센터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유지 등이다. 김성철, “지역사회 복지시설로서의 교회 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65.

중 3명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13~17세 연령층에서는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는 인원이 급격히 줄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3명 중 1명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지만 한국의 주일학교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성도와 관련해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초등학교 시절(46.7%)부터 5-15년 교회를 열성적으로(43.2%) 또는 어느 정도(90.3%)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23.4%)혹은 30대에(25.0%)교회를 떠나고 이미 교회를 안 나간지 10년 째(52.6%)지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⁴⁾

국내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의 차이점도 희미해지고 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세상 아이들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는 엄청난 문화 흡입력을 통해 그들만의 퓨전문화를 만들어간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강하다. 또한 세계화 경향과 인터넷 문화 덕분에 사회 전반적으로 ‘열린 사고와 표현의 자유’가 그들 사이에 퍼져 간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기존 전통과 관습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다. 교회 안의 젊은이나 청소년들이 무례하고 버릇없다는 지적을 자주 듣는다. 신세대는 문화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화가 세상과 다르거나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본 교회도 학생이 줄어드는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통해 교회에 출석했으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세상문화를 접하게 되고 문화적인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여겨지므로 많은 청소년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교회는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 더 좋은 과정을 모색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개편이 잦은 형태로 일관돼 왔다. 다음세대 교육은 교육위원회만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함께 힘써야 할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세대교육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회학교 교육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134) 김난예, “회심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 *목회와 신학* 통권292호 (2013. 10): 70.

세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가. 회심에 대한 과제

회심의 경험은 신앙생활에 있어 한번 경험하는 것이고, 이 경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한다. 회심은 그 어떤 이론과 프로그램 보다 인간의 삶의 형태를 바꾸게 한다. 현재 교회학교는 프로그램 중심, 공과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난에는 교회 교육에서 회심의 경험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¹³⁵⁾

- . 어린이를 영적인 존재라고 인정해야한다.
- . 영적인 것들을 내면화하도록 도와야 한다.
- . 교회는 어린이들이 회심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정리하면 회심을 통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교회학교는 양육되어야 한다. 어린이가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어린이가 중보기도를 하게하고, 어린이가 전도팀을 구성하게 하고, 일상의 영적경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창조론¹³⁶⁾에 대한 과제

교회교육이 일반교육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이다. 교회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다가 고등교육이 진행 될수록 자신이 알아왔던 창조론은 뒤로 하고, 학교에서 교육된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청소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도 성경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과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지식사회에서 성경자체 말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다음세대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교육은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세미나와 부모와 함께하는 ‘창조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성(Sex)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과제

현재 한국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135) Ibid., 71-72.

136) 창조론에 대한 자료는 ‘한국창조과학회’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www.kacr.or.kr)

영국 동성애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후 우리나라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기존의 성도들은 보수적이어서 이 부분을 용납하지 않지만, 다음세대는 성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다.

1994년 청소년교육선교회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혼전 순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63.5퍼센트가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20년이 지난 2014년 기독교 청년의 36.8퍼센트만이 ‘결혼 전에는 절대로 성관계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비기독교 학생의 18.0퍼센트만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성문화는 이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 동성애에 대한 의식은 더욱 심각해 전체의 27.2퍼센트만이 ‘동성애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을 뿐, 비기독교 청소년의 65.8퍼센트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고 기독교 청소년 역시 37.7퍼센트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지지를 보냈다.¹³⁷⁾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교회교육은 기독교적 성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현장에서는 금기시 하고 있다. 다루어야 할 것을 알지만, 교회안의 보수적인 분위기는 성이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기를 불편해 한다. 교회학교의 교육을 통해 정체체성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 동안 교회교육에서 성교육은 배제된 부분이였다. 이제 정체체성 문제는 교육의 문제를 넘어 우리 자녀들이 그 동안 알아왔던 신앙까지도 흔들어 놓을만한 이슈가 되어 버렸다. 이제 교회교육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다문화 가정의 교회 활성화 과제

오늘날, 각 지역별 다문화가정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녀들의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함께 어울려 그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한국아이들의 문화적 충돌을 줄이기 위한 문화 체험 및 ‘학업도우미 짝꿍’ 같은 프로그램을 계

137) “중고생 종교의식 조사결과”, 기독교연합신문, 2014년 7월 4일자, Online: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628>

회해 볼 만 하나.

제 7 장

결 론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있다. 앞으로 있을 한국교회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많은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처럼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¹³⁸⁾세상은 교회를 불신하고, 더 이상 교회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보다는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전도현장을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의 복음에 냉냉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부흥을 위해 교세확장을 위주로 성장해왔고,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교회건물은 과거의 흔적이 되어가고,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고령화 되어가며, 주일학교 아이들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역사회에 세워진 교회는 지역 가운데 건물로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어지고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와 상관없이 부흥을 말하고, 지역주민은 교회를 자신들만의 신앙세계에 빠져있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 처럼 교회는 내적인 어려움과 함께 외적인 사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영역 속에서 봐야 한다. 복음의 영역도 영혼구원에게 국한시키기 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품어야 한다. 교회는 이제 지역사회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 지역사회 스스로가 자정할 수 없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런 시대적 흐름가운데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지역사회의 형성 조건과 기능을 살펴보면서 종교가 지역사회에 사

138)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74.

회통학적인 기능과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며 사회 규범들과 가치를 성화시키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함을 말했다. 이런 기능들은 사람들 스스로 규범을 준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간 결속력을 갖게 해 줌을 말했다. 교회는 이런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세워져 지역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음을 말했다.

제3장에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를 사례로 녹색교회, 복지중심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로 살펴보았다. 이들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적 교회가 되어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와 지역이 연계되어 그 결과로 복음화 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녹색교회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연결되어 도시와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중심의 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익을 주어 지역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본 연구가 적용되어야 할 지역 울산시를 살펴보았다. 다른 지역보다 행복지수와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 한국이 주목할 만한 도시이지만, 이 속에서 기독교가 울산 인구전체에 비해 낮게 분포된 것과 오랜 시간동안 교회가 울산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제5장은 방어진제일교회가 울산의 급변하는 환경과 교회적인 갈등가운데 자리잡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교회가 활성화 되어왔던 과정에는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어왔음을 보게 되었다. 본 교회는 김상복 목사가 부임하는 시점부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회봉사적 요소로 다가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 효과는 교회가 부흥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제6장은 방어진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문제와 한계에 마주하게 됨을 말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사역교인의 한계, 전문화된 봉사자 필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영향을 주고, 앞으로 올 지역주민들이 더 가깝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갱신을 언급했다. 이 갱신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지역과 교회가 더 친밀해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릴 것을 제시했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동안 많은 교회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닌 교세 확장의 대안으로 사회봉사를 해왔다. 이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부담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지역주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섬김의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봉사활동을 넘어, 이제는 전문화된 봉사자의 양성과 지역사회 접근이 요청된다. 본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지역 섬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이 찾아오게 하는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필요를 찾아가는 전문화된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사업이 아닌, 그 지역교회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찾고 개발하여 확장해 가야한다. 이런 접근은 그 동안 지역사회 내 배척해 왔던 복음을 수용적인 태도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부록 1

바나바 8주 치침사항

1주

1. 예배시간에 선정된 세가족을 모시고 세가족실(문서선교실)로 간다.
담임목사님과 함께 차를 나누고 사진을 촬영하고 달력과 교회요람을 받는다.
축복기도를 받고 식당으로 간다.
2. 바나바는 세가족 옆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식사하며, 교회의 주일 낮과 오후, 수요일 집회의 모임시간을 안내한다.
3. 예배후, 식당까지 동행, 같이 식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주요 인물소개(3명만)
4. 인사 : 바나바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다.
5. 세가족 알기 : 세가족의 이름, 가족사항, 사는 곳, 직업, 고향 등을 파악한다.
6.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1과를 공부 한다.
7. 심방약속 : 주중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 번 만날 것(심방)을 약속 받는다.
8. 주차장 또는 승차하는 곳까지 동행하면서 배웅을 한다.
(도보로 온 사람인 경우 교회 대문까지 배웅)
9. 주중의 심방 : 반드시 세가족을 인도한 사람과 함께 심방한다.
선물을 지참한다.
첫 교회 출석에 대한 소감, 계속 신앙생활 가능성 정도 등을 파악한다.
다음 주일 출석을 권면하고, 전도 가능한 주변인들을 파악한 후,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복과 평안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심방을 마친다.

2주

1. 집에 찾아가서 함께 오거나 여의치 않을 때는 미리시간을 약속하여 교회정문에서 반갑게 맞는다.
2. 예배실에서의 행동 요령을 알려준다(입실, 기도, 안내위원의 안내 받기, 후보, 좌석 선택-가급적 앞자리로, 미리 설교본문 성경말씀 찾기 등 안내)

3. 후보 사용법안내(함께하는 순서, 서거나 앉는 순서), 성경 사용법, 찬송가 사용법, 교독문 찾는 법 등 안내한다.
4. 예배 후, 식당까지 동행, 같이 식사를 나누후 자연스럽게 주요인물소개(3명만)
5. 교회 시설물 안내 : 화장실, 예배실, 식당까지만 안내한다.
6.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2과를 공부.
7. 교회로 올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불편사항 청취 한다.
8.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참석 권면 한다.
9. 새가족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전도 가능성 파악, 전도를 권면한다.
10.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따라가서 배웅 한다.
(※ 주일낮 예배에 결석했을 때에는 오후예배라도 꼭 오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수요일 밤에라도 꼭 오게 한다.)

3주

1.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맞는다.(미리 시간 약속)
2. 예배실로 동행, 후보 등 자료 받기, 헌금함 사용 안내, 좌석을 안내한다.
3. 예배 후 식당까지 동행하여 같이 식사를 나누고, 주요 인물 소개한다.
(3명 추가, 미리 소개한 사람과도 가급적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시설물 안내(사부실위치, 담임목사실 위치, 주방, 수도 등 모든 시설물 들)
5.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3과를 공부.
6.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참석을 권면한다.
7. 우리교회 교회학교(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안내하고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 권면한다.
8. 담임목사님의 심방 가능성을 알아본다.
(담임목사님의 심방의 의미를 설명하고 심방을 받을 것을 권면 함.)
9. 주변인들에 대한 전도가능성 파악한다.
10.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 한다.
11. 주중에 식사 초대(가능한대로) 한다.

(※ 주일 낮에베에 결석 시에는 오후에라도 꼭 오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수요일 밤에라도 꼭 오게 한다.)

4주

1.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맞는다.(미리 시간 약속)
2. 예배실로 동행, 후보 등 자료 받기, 헌금함 사용 안내, 좌석 안내 한다.
3. 예배 후 식사까지 동행, 주요 인물 소개한다.
(3명 추가, 지난 주 소개한 사람과 미리 약속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기본적인 신앙 상식 안내 -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새가족 가이드북참고) 가르쳐 준다.
5. 기초적인 신앙생활 안내 - 식사기도하는 법, 방문했을 때 기도, 취침 및 기상 기도, 성경 읽기를 알려준다.
6.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4과를 공부한다.
7. 오후 예배, 주간 예배 참석과 자녀들의 교회학교 출석 권면과 안내한다.
8. 불신 가족들의 반응 파악과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 안내한다.
9.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심방 약속한다.
(심방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목요일)
10. 주변인들에 대한 전도 여부 파악 한다.
11.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 한다.

5주

1.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맞는다.(미리 시간 약속)
2. 예배실로 동행, 후보 등 자료 받기, 헌금함 사용 안내, 좌석 안내를 한다.
3. 예배 후 식사까지 동행, 주요 인물 소개(3명 추가, 지난 주 소개한 사람과 가급적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한다.)
4. 해당지역장, 속장 만남 주선하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게 한다.(미리 구역장,

- 지역장에게 전화를 해 두어야 한다)
5.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5과를 공부한다.
 6. 기초적인 신앙 생활 안내(새가족 가이드 북 참고) 한다.
예배 순서의 의미 설명, 헌금의 종류와 의미, 그리고 헌금드리는 방법 안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신앙적 대처 방법 소개(초상을 당했을 때, 문상을 갔을 때, 명절이 되었을 때, 재삿날이 되었을 때 등 먼저 교회와 의논할 것을 권면)
 7. 오후예배 참석, 주간 예배 참석, 기관모임 참석, 자녀 교회학교 보내기등 권면한다.
 8.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등, 기도 모임 참여 권면한다.
 9. 주변인들에 대한 전도 여부 파악 한다.
 10.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 한다.

6주

1.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인사, 맞이한다.
2. 예배실까지 동행, 옆자리에서 예배, 예배 후 식사까지 옆자리에서 있다.
3. 교회의 주요 사업 안내와 참여 권면 (남입 목사의 목회 방향, 교회표어, 올해의 복표 안내, 대외 직간접 선교 사업 안내(해외 및 국내 선교 사업)한다.
4.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6과를 공부한다.
5. 오후 예배, 주간예배, 기관 모임, 기도회 등예의 참석 여부 확인한다.
6.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한다.

7주 (봉사자 만들기)

1. 함께 오거나 정문에서 반갑게 인사, 맞이한다.
2. 예배실, 식사 자리까지 동행한다.
3. 교회 조직과 봉사 활동 안내, 우리교회 각부 조직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재무부, 문화부, 관리부) 소개하고 하는 사역을 알려준다.

4. 예배시간을 제외한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7과를 공부한다.
5. 봉사 자원서 작성(미리 준비할 것) 권면한다.
6. 소속 선교회를 안내하고 선교회장 만남 주선하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한다.
(미리 선교회장에게 연락해 들것)
7. 다음 주일 낮 예배 시간의 수료식 참석 안내 한다.
8. 앞마당 또는 승차 때까지 배웅 한다.

8주

1. 구역장과 함께 정문에서 인사, 영접 한다.
2. 예배실에서 수료식을 진행한다.

부록 2

설문지

저는 광은교회(경기도 광명 소재)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김상복목사님의 둘째 아들이며, 그 동안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해 왔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목회를 소개하고자 졸업논문 제목을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목회활성화 방안(방어진제일교회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김상복목사) 30년 목회사역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성도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하고,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된 자료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 기 동 목사 올림

- 아래 항목에 (√)해 주시면 됩니다 -

1. 성별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남자 (50명) 2) 여자 (208명)

2.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12명) 2) 30대 (15명) 3) 40대 (50명)

4) 50대 (120명) 5) 60대 (24명) 6) 70대이상 (3명)

3.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 1) 동구 (234명) 2) 중구 (3명) 3) 서구 (0명)
 4) 북구 (8명) 5) 기타지역(13명)

4. 본 교회 등록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 20년 이상 (145명) 2) 10년 이상 (71명)
 3) 5년 이상 (28명) 4) 5년미만 (10명)

5. 본 교회 출석하게된 경로 및 동기는?

- 1) 부모님 때부터 (36명) 2)주일학교 때부터 (15명)
 3) 전도에 의해서 (93명) 4)자진출석 (95명) 5) 기타 (19명)

6. 직분을 표시해 주십시오.

- 1) 교역자 (6명) 2) 향존직(장로·안수집사·권사) (147명)
 3) 서리집사 (84명) 4) 일반성도 (21명)

7. 직업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사회 및 자영업(37명) 2) 봉급생활자(55명)
 3) 전문직 (23명) 4) 가정주부 (121명) 5) 학생 및 기타(22명)

8. 가족의 신앙생활을 답변해 주십시오.

- 1) 전 가족출석 (167명) 2) 가족 2인이상 출석 (64명)
 3) 본인만 출석 (19명) 4) 기타유형 (8명)

9. 거주 형태 및 전망을 표시해 주십시오.

- 1) 계속거주 (232명) 2) 일시거주 (5명)
 3) 이주가능 (10명) 4) 기타 (1명)

- 다음은 방어진제일교회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

10. 방어진제일교회 대한 만족도는?

- 1) 매우만족 (119명) 2) 대체로 만족 (123명)
- 3) 그저 그렇다(15명) 4) 불만족(1명)

11. 방어진제일교회의 예배를 평가해 주십시오. (○로 표시 합니다.)

구 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새벽 1부 예배	110명	100명	48명		
새벽 2부 예배	101명	98명	59명		
주일 낮 예배	140명	90명	26명	2명	
주일 저녁예배	120명	94명	36명	8명	
수요예배	112명	98명	30명	18명	
금요철야	100명	91명	48명	19명	
구역 예배	107명	94명	35명	22명	

12. 교회 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로 표시 합니다.)

구 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무응답
중보기도 모임	63명	85명	52명	15명	5명	38명
금요성경 공부	65명	72명	51명	28명		42명
성경(제자)대학	83명	72명	44명	18명		41명
새가족 학교	57명	67명	44명	28명		62명
바나바 사역	57명	77명	45명	26명		53명
이와나	69명	64명	24명	24명	12명	64명
전도대	58명	79명	46명			75명

주일점심식사	78명	107명	38명	23명		12명
--------	-----	------	-----	-----	--	-----

13. 교회 활동(프로그램)중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교회기관들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로 표시 합니다.)

구 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잘모름
당회및 제작회	42명	95명	67명	22명	15명	17명
교육부서	43명	102명	66명	24명	4명	19명
청년회	48명	82명	68명	25명	4명	31명
각 전도회	50명	105명	61명	24명		18명
각 찬양대	54명	111명	51명	19명		23명
해외선교	63명	98명	52명	22명		23명
국내선교	52명	96명	58명	24명		28명

(※ 교육부서 :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등을 말함)

14. 교회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로 표시 합니다.)

구 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잘모름
교회 시설	68명	125명	42명	9명	1명	13명
음향 장비	75명	108명	41명	16명	7명	11명
영상 장비	78명	111명	38명	13명	7명	11명
냉난방 시설	91명	117명	30명	20명		
교회차량	69명	109명	45명	14명	9명	12명

15. 본 교회를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되겠습니까?
 40점 미만(14명), 50점이상(15명), 60점이상(25명), 70점이상(38명),
 80점이상(60명), 90점이상(87명)

- 다음은 지역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

16. “구제와 사회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동의한다 (218명) 2) 동의하지 않는다 (23명)

17. 교회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봉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모두 알고 있다 (55명) 2) 조금알고 있다 (164명)
 3) 모른다 (21명) 4) 무관심 (18명)

18.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177명) 2) 없다(81명)

19. 귀하가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간이 없어서 (154명) 2) 그저 싫어서 (37명)
 3) 필요를 못느껴서 (38명) 4) 무관심 (29명)

20. 본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 (70명) 2) 조금 긍정 (156명)
 3) 조금 부정적 (22명) 4) 매우 부정 (10명)

21. 본 교회가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매우만족	대체로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잘모름
제일선교원	72명	104명	53명	16명	1명	12명
아나바다	53명	92명	72명	12명	3명	26명
무료급식	112명	91명	34명	6명		15명

22. 교회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1) 매우 긍정 (77명) 2) 조금 긍정 (150명)
 3) 조금 부정적 (22명) 4) 매우 부정 (9명)

23. 교회건물을 지역사회 주민의 필요에 따라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 (70명) 2) 조금 긍정 (132명)
 3) 조금 부정적 (47명) 4) 매우 부정 (9명)

24. 현재 교회에서 지출되는 지역사회봉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너무 많다 (15명) 2) 적당하다 (139명)
 3) 조금 부족하다(84명) 4) 매우 부족하다 (20명)

25. 교회가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 (75명) 2) 조금 긍정 (146명)
 3) 조금 부정적 (24명) 4) 매우 부정 (13명)

26. 현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이나 자치단체등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 1) 강한 협력관계 (27명) 2) 비교적 강한협력 (101명)
 3) 비교적 약한협력 (103명) 4) 약한 협력관계 (27명)

27.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분야에서 귀하를 위원이나 봉사자로 위촉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 1) 매우 긍정 (40명) 2) 조금 긍정 (163명)
 3) 조금 부정적 (38명) 4) 매우 부정 (11명)

28. 본 교회에서 지역 사회봉사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 (77명) 2) 조금 긍정 (132명)
 3) 조금 부정적 (38명) 4) 매우 부정 (11명)

29. 교회의 형편에 따라 지역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 사회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긍정 (105명) 2) 조금 긍정 (136명)
 3) 조금 부정적 (16명) 4) 매우 부정 (1명)

30. 지역 자치단체(구청·동사무소)와 교회, 복지관 등이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긍정 (101명) 2) 조금 긍정 (129명)
 3) 조금 부정적 (18명) 4) 매우 부정 (10명)

- 교회가 지역사회에 해야 할 사업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0)를 해 주세요-

31. 어린이를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유아원,유치원, 선교원 운영 (135명)
- 2) 방과 후 학교 및 어린이 공부방 (80명)
- 3) 입양, 위탁부모 결연 사업 (31명)
- 4) 아동보호시설 방문 및 후원금 지원 (33명)
- 5) 아동 양육 강좌 개설 (15명)
- 6) 기타(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에체능, 어린이 문화센터

32. 청소년을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학사업 (58명)
- 2) 독서실, 공부방 운영 (61명)
- 3) 청소년 선도 (42명)
- 4) 청소년 상담 (88명)
- 5) 소년 소녀 가장 지원 (55명)
- 6) 스포츠 활동 시설과 공간제공 (77명)
- 7)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85명)
- 8) 기타(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33. 주부를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주부교양강좌 (129명)
- 2) 모자원 (26명)
- 3) 부녀 상담실 (51명)
- 4) 가정 폭력 임시 피난처 (27명)
- 5) 기타(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부부상담

34. 노인을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노인대학 (111명)
- 2) 경로잔치 (24명)

- 3)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72명)
- 4) 노인 무료급식(49명)
- 5) 간병 및 활동보조(세탁, 김장, 청소, 목욕등) (50명)
- 6) 기타 노인상담

35. 장애인을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장애인 시설 운영 (62명)
- 2) 장애인 시설 방문 및 지원 (63명)
- 3) 장애인을 위한 봉사 (83명)
- 4) 기타 (1명)

36.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불우이웃돕기 (75명)
- 2) 결식자를 위한 무료급식 (88명)
- 3)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 (53명)
- 4) 무료진료활동 (52명)
- 5) 복지관 운영 (26명)
- 6) 동네 청소 (28명)
- 7) 지역봉사자(환경미화원,집배원등)을 위한 잔치 (11명)
- 8) 사랑의 김장나누기 (41명)
- 9) 사랑의 쌀독운영 (21명)
- 10)기타. 다문화를 위한 한글공부

※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국문 서적

- 권문상. *부흥 이계인 1907*. 경기도: 브니엘, 2006.
- 김난애. “회심을 위한 주일학교 교육,” *목회와 신학*. 2013년 10월호.
- 김성철. “지역사회 복지시설로서의 교회 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목회와 신학. 2015년 7월호.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10.
- _____.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8.
- 김치영·윤경애. *지역사회복지강론*. 서울: 양서원, 2003.
- 김철규. *한국 로컬푸드 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2011.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3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결과발표세미나안*.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4.
- 노영상. “건강한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사명,” *목회와 신학*.
2013년 4월호.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녹색교회*.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0.
- 박태영. *지역사회복지론*. 경기도: 현학사, 2003.
- 방어진제일교회. *2015년 요람*. 울산: 방어진제일교회, 2015.
- 서창원. *교회 예수의 깨어있는 공동체*. 서울: 진리의 깃발, 1999.
- 이영철.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서울: 양서원, 2003.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이한진. “장애인의 신앙생활을 돕는 목회 전략,” *목회와 신학*. 2009년 1월호.
- 은준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예배* (서울: 연세대학교연신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989).
- 임성규. “교회의 바람직한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 *목회와 신학*, 2015

년 6월호.

- 연세대학교 미래교회킵퍼런스. *녹색교회 생명목회*, 자료집(2010년).
- 울산광역시. *2014년 시정백서*. 울산: 울산광역시, 2014.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 울산: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울산광역시. *2000년울산광역시종교행정 및 각종통계자료*. 울산: 울산광역시, 2001.
- 울산광역시동구, *2014구정백서*.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청, 2014.
- 유장춘. “한국교회 목회의 문제점과 교회회사업의 실천과제”,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05.
- 양용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신교회, 2005.
-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84.
- 은준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예배*. 서울: 연세대학교연신원 하기신학세미나 강의집, 1989.
- 정재영. *소그룹의 사회학*.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주승중. “칼뱅의 예배관에 근거한 한국 교회 예배의 문제와 대안,” *목회와 신학*. 2012년 4월호.
-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승근. *예배*. 서울: 두란노, 2015.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판, 1996.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최윤식.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윤식,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최신시사상식. 서울: 박문각, 2013.
-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녹색교회*. 서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2010
- 황성철. “한국 교회 임직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목회와 신학*. 2009년 11월호.
- 홍순석. “임직자 선출,” *목회와 신학*. 2009년 11월호.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서울: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2012.

통계청. *2013년 혼인·이혼 통계*. 서울: 통계청, 2014.

통계청. *2014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2015.

2. 번역서적

Banks, Robert.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9.

Berkhof, Louis.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서울: 두란노, 1998.

Clowney, Edmund P. *교회*. 황영철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8.

Clinton, J Robert and Richard, W Clinton. *멘토링 매뉴얼*, 이영규 역. 서울: 디모데, 2013.

Dawn, Marva J. *고귀한 시간낭비*, 김병국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Donahue, Bill and Russ Robinsos, *소그룹을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_____,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Fritz, Daiber Karl.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봉사*, 황금봉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Ladd, George E.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박미가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_____,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역. 서울: 엠마오, 1985.

Long, Thomas G. “옛것과 새것 : 변화하는 시대속의 예배” 서울: 인터우드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9.

Maxwell, John C. *인재경영의 법칙*, 임윤택 역. 서울: 비전과 리더쉽, 2013.

Nicholas, Ron.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5.

Ridderbos, Herman.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Stevens,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서울: 미션월드, 2007.

Stevens,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1995.

_____,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1.

Synder,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Timmer, John. *하나님 나라 방정식*, 류호준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Warren, Rick. *새들백교회이야기*, 서울: 디모테, 1995.

Vita of
Ky Dong Kim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Gwangeun Presbyterian Church, Gwangmyeong,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November 18, 1974
 Birthplace: Gyeongbuk,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Bo-Young Kwak, with two sons
 and one daughter, Joowan, Joosung, Yejoo.
 Home Address: 61, Munhyeon 6-gil, Dong-gu, Ulsan, Korea
 Phone: Home: 052-201-0755 HP: 010-3138-7822
 Denomination: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11, 2005

Education

B. A.: Baekseok University, Cheonan, 2000
 M. Div.: Baekseok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3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astoral Experience

2006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Gwangeun Presbyterian
 Church, Gwangmyeong
 2003 - 2005.: Assistant Pastor of Busan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Busan